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Seoul International Social Economy Conference
Leapfrogging and the Potential for the Social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해외전문가 강연회 7.16 (화) 13:30~16:30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 포럼

7.17 (수) 10:30~16:30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주최 · 주관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가능성

초대의 글

북한의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 '단번도약'을 생각해봅니다. 경제제재가 풀리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한꺼번에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뜻을 담은 용어입니다. 이 전략은 그 동안 이야기해오던 남쪽은 자본과 기술, 북쪽은 값싼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투입해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전략과는 대조적입니다. 북한은 이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처음부터 받아들여 새로운 개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 모델에는 사회 발전이 포괄되어야 합니다.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자본주의 방식의 개발 전략에서도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단번도약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사회발전단계를 뛰어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스템으로 단숨에 전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북한이 경제 제재 해제 이후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특히 남북경협을 통한 개발전략을 짤 때, 그 한 부문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생산시스템을 처음부터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기업이나 국영기업으로만 구성하지 않고, 다양성을 가진 것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으로서의 단번도약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방식이 북한에 적용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고자합니다. 또한 쿠바, 동유럽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되면서 선택했던 개발전략과, 중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반성과 전망을 들어보며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준비해야할 점들을 짚어봅니다.

한반도 공동 성장을 위한 혁신,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식을 상상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반도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축사



김재현 산림청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대해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에 참석하신 분들과 소통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 가능성'이란 주제가 산림분야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산림청에서 후원 역할을 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산림협력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 경험이 많은 분야이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첫 번째 협력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 내부에서도 2013년 산림건설총계획을 수립하여 황폐화된 산림복원을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림복원이 필수요건임을 남과 북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지난 40여 년 노력을 통해 국토의 64%를 산림으로 가꾸었습니다. 산림자원이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재해예방 등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기능성**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8.5%인 126조에 달합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든든한 기반이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산림의 공공재적 가치를 이용해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문제 해결에도 힘써왔습니다. 경제위기 시 산림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난 극복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휴양, 교육, 치유 등 산림서비스를 통해 학교폭력, 세대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림은 시장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산림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산림형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인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각 기초지자체에 역량 있는 전문매니저를 배치하여 지역별 특화 서비스와 재화를 창출하는 지역주민 주도의 산림형 경영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의 26%를 차지하는 국유림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림을 대부·사용 중인 마을을 기업화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의 경우 전체 산림면적의 32%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식량과 땔감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북한 산림황폐화의 원인과 우리의 산림녹화 성공사례를 비교·분석해보면, '지역기반', '주민참여', '정부 뒷받침'이라는 사회적경제의 요소들이 성공적인 북한산림 복원을 위한 원칙이자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남북관계 특성상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림협력을 단독 의제로 하여 합의사항을 도출한 당국 간 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었고,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려고 남과 북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 축적된 산림자원과 기술, 사회적경제 노하우들이 북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회적경제 컨퍼런스를 계기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미 있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산림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해 주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 7. 산림청장 김재현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 02 초대의 글
- 03 축사
 - 김재현 산림청장

1일차

- 11 해외전문가 강연회 7.16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적경제의 경험과 가능성
- 13 쿠바 경제 모델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 라파엘 베탕쿠르 쿠바 하바나대학교 교수
- 29 유고슬라비아의 경험: 시장사회주의, 포스트 사회주의 전환과 EU 소냐 노브코빅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39 중국 농업의 현황: 역사, 도전, 그리고 최근의 농촌 정책** 저우 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2일차

85 국제포럼 7.17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 가능성

87 라운드테이블

좌장 이원재 LAB2050 대표

발 제

-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

토론

- 라파엘 베탕쿠르 쿠바 하바나대학교 교수
- 소냐 노브코빅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우 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

109 주제별 세션

지역개발

- 김준호 사회적 기업 더함 부대표
- 라파엘 베탕쿠르 쿠바 하바나대학교 교수

토지·주택

-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

먹거리·도농상생

- 저우 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사회적 금융

- 김광욱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173 종합토론

좌장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

토론

- 라파엘 베탕쿠르 쿠바 하바나대학교 교수
- 소냐 노브코빅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교수
- 저우 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
-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정태인 독립연구자, (전)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

Leapfrogging and the Potential for the Social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 02 Invitations
- 03 Welcome Address
 - Kim Jae-Hyeon, Minister, Korea Forest Service

Day 1

- 11 Lectures from guest speakers 7.16
 Introducing the market economy into former socialist systems,
 and experiences and potential the social economy
- 13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Transformation of the Cuban Economic Model
 - Prof. Rafael Betancourt, Colegio Universitario San Geronimo de La Habana, Cuba
- 29 Yugoslav experience
 - : Market socialism, post socialist transition and the EU
 - Prof. Sonja Novkovic, Saint Mary's University, Canada
- 39 Agrarian Situation in China
 - : History, Challenge, and Recent Rural Policies
 - Prof. Zhou Li, Renmin University, China

Day 2

85 International Forum 7.17
Leapfrogging and the Potential the Social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Chair Lee Won-jae, CEO, LAB2050

Keynote Presentation

- Cho Jung-hun, Director, Ajou Institute of Unification

Discussants

- Prof. Rafael Betancourt, Colegio Universitario San Geronimo de La Habana, Cuba
- Prof. Sonja Novkovic, Saint Mary's University, Canada
- Prof. Zhou Li, Renmin University, China
- Kim Yeong-hee, Senior Researcher, KDB

109 Topic-by-Topic Sessions

Local Development

- Kim Jun-ho, Vice-CEO, THEHAM
- Prof. Rafael Betancourt, Colegio Universitario San Geronimo de La Habana, Cuba

Land and Housing

- Cho Seong-chan, Director,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Food and Urban-Rural Cooperation

- Prof. Zhou Li, Renmin University, China

Social Finance

- Kwang Kim, Country Representative, Korean Office of the Asia Foundation

173 General Debate Chair Cho Jung-hun, Director, Ajou Institute of Unification

Discussants

- Prof. Rafael Betancourt, Colegio Universitario San Geronimo de La Habana, Cuba
- Prof. Sonja Novkovic, Saint Mary's University, Canada
- Prof. Zhou Li, Renmin University, China
- Kim Yeong-hee, Senior Researcher, KDB
- Eun-ae Lee, President, Seoul Social Economy Center
- Jeong Tae-in, Independent Researcher/former director, Karl Polanyi Institute Asia
- Cho Seong-chan, Director,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서울 시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대변도약교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

첫째 날 2019. 07. 16.







사회연대경제와 쿠바 경제모델의 전환

Rafael Betancourt 교수

Red ESORSE - 사회연대경제 쿠바네트워크

rbetancourt3114@gmail.com

2019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용어 및 개념

-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
- 민중&연대경제(Popular and Solidarity Economy, EPS)
- 사회적경제
- 연대경제. 모두를 위한 경제 등

우리의 강점은 <mark>다양한</mark> 의미와 개념을 아우른다는 것이다. 쿠바의 현실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말하고 쿠바식 사회주의 모델과 동화하는 것이 우리의 <mark>과제</mark>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사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사적 배경, 지역, 국가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항상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순간에 위의 개념들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었다.

개혁 vs. 변혁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는 주로 협동조합, 상호공제회 등의 민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치 원칙과 민주적 프로세스를 따르며 수익 분배에 있어서 자본 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선시한다. 또한 이익 추구보다는 구성원과 집단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샤를 뒤누아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새로운 논문*(1830)



최초의 협동조합: 로치데일 협동조합 (1884년 잉글랜드)



<mark>리디스커버드</mark> 1970년대 프랑스와 벨기에

연대경제

- 연대경제는 사회 전반과 경제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연대경제를 기반
 으로 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 연대경제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신 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아닌, 인간과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로 변화를 추구한다. (2011 년 몬트리올, 대륙간 사회경제 네트워크 RIPESS)
- 연대경제의 특징
 - a) 사회적 요구에 응답(연대기업, 공평한 사회, 윤리적 금융)
 - b) 사회적 변화를 향한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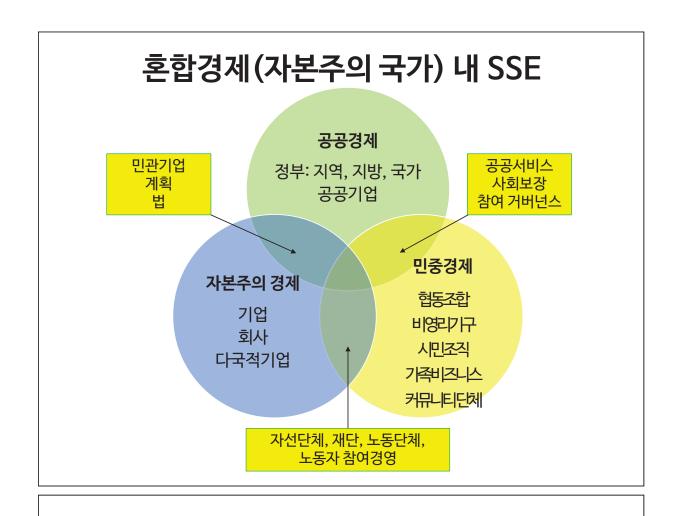
민중 & 연대경제 (EPS)

- 스스로의 노동과 사용가능한 자원으로 기본적인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킴을 목표로 하는 민중계급이 만들어낸 일련의 경제활동이자 사회적 행동
- 실업, 불완전고용으로 수입이 불안정하고 위험하거나 일정한 형식 없이 작업하는 노동자들은 이익보다는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경제적 해방을 추구하는 소득을 창출하고 대안을 구한다.
- 에콰도르 헌법에서도 EPS가 언급되며 협동조합, 시민조직, 커뮤니티
 단체가 포함된 민중과 연대경제 법으로 규정된다.



사회연대경제(SSE)

- <mark>사회적·환경적 목표를</mark> 우선시하고 집단적으로 연대하여 일하는 생산자,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
- 자본의 재생산이 아닌 노동이 삶의 중심인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창출이 목표
- 모든 집단 가족, 커뮤니티, 지역, 국가, 그리고 전세계까지 차원 에서 구성원 간 연대의 가치 함양







자본주의의 복원



시장사회주의

or



시장이 결합된 사회주의



정부부문 강화 + 사회연대경제

국제적 시각:미국 vs. 쿠바



"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니카라과와 쿠바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

- 60여 년의 경제,무역, 금융 제재조치
- 누적비용 1,500 달러
- 로널드 레이건 이후 가장 공격적인 미국 대통령

2019년 2월 마이애미, 도널드 트럼프

어떤 모습인가? 쿠바: 공공경제 사회연대경제 · 국가, 시·도 수준 예산제도 · 발전계회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기업경제 민간경제 ·정부 주도 벤처와 ·협동조합/시민단체 협동벤처 · 민중시장경제 · 전략적 계획 · 가족 비즈니스 · 비형식적 부문 · 자기경영 · 국가를 위한 수익창출

쿠바의 사회주의국가 발전 모델

• 49.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사회주의적인, 민주적인, 그리고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에서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윤리적, 문화적, 정치적 가치를 강화를 약속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안정적이고 부유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것이 쿠바의 사회주의국가 발전 모델의 목표이다.



CONCEPTUALIZACIÓN DEL MODELO ECONÓMICO Y SOCIAL CUBANO DE DESARROLLO SOCIALISTA

PLAN NACIONAL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HASTA 2030: PROPUESTA DE VISIÓN DE LA NACIÓN. EJES Y SECTORES ESTRATÉGICOS

* Proyecto de Conceptualización del Modelo Económico y Social de Desarrollo Socialista, 7° Congreso PCC, abril 2016

쿠바의 사회주의와 사회연대경제

- 쿠바의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지속해왔다.
- 쿠바경제의 목표는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키고 사회주의의 건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익의 창출이 목표가 아니다.
- 공공부문이 강한 국가의 중앙정부에 의한 "톱 다운" 방식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mark>절대적이고</mark>, 당연하기도 하지만 자주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
- 2011년 이후 <mark>협동조합과 민간 부문 부상</mark>: 수익을 추구하면서 국가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행하는 <mark>새로운 집단</mark>들의 등장
- 법체계의 수정 필요

쿠바 헌법

1997

조항20. 농업생산협동조합 조직 인가

조항21. 노<mark>동 착취를 통한 수입 추구</mark>와 무관한 <mark>개인 및 가족의 노동</mark>으로 얻은 재산을 보장한다.

2019

조항 22. 다음 형태의 재산을 인정한다.

- a) 민중 사회단체… 국가에 의해 대표
- b) 협동조합: 집단적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구성원이 소유하는 조직이며 협동주의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행함
- c) 정치적 대중적 사회적 조직
- d) 민간:특정 생산수단을 대상으로 함
- e) 혼합(협동벤처): 둘 이상의 결합에 의해 형성
- f) 기관과 연합 형태… 비영리
- q) 개인: 생산수단을 구성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쿠바의 SSE 단체: 제안

공공 부문 (예산편성)

-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 대학, 연구센터
- 문화기관
- 지방정부기관
- 지역발전프로젝트
- 지역발전, 주거지원 금융기관

공공(국가)기업 부문

- 사회적책임을행하는기업
- 민관 파트너십
- 협동프로젝트

민간 부문

- 협동조합
- 시민단체, NGO, 재단
-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
- 가족 비즈니스
- 장인 및 예술가
- 비형식적 부문

쿠바의 SSE: 비전

- 사회연대의 핵심인 거시경제는 대부분의 경제적 주체 공기업, 예산 조직, 협동조합, 민간기업, 자영업자 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제적 주체들은 사회 (가족, 피고용인, 고객, 그외이해관계자들과해당 커뮤니티)와 환경에 대한 책임은 곧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로 이루어지는 거시경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 포용적 지역발전을 통한 번영· 민주적·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
- 쿠바의 사회적연대경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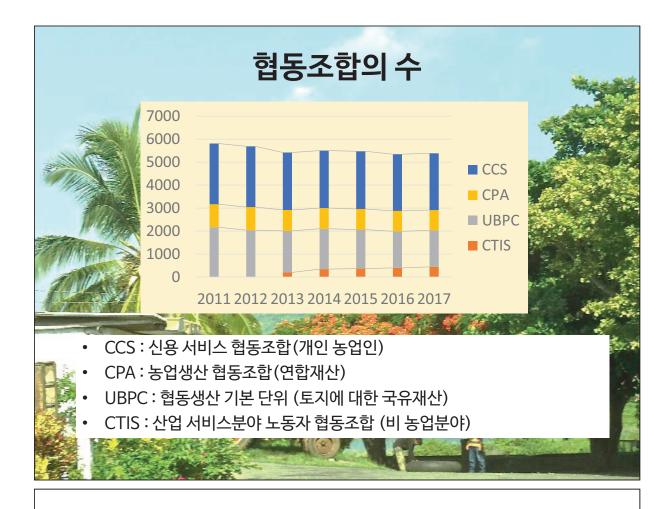






협동조합 부문





CTIS : 산업 서비스 노동자 협동조합 (비 농업분야)

- 2013년 4월. 쿠바 내각의 승인, 사실상 실험 단계
- 2014년 3월. 498건 승인, 운영: 434건
- 77% "긍정적", 정부와 분리
- 23%: 민간노동자단체.201개의승인된활동으로제한
- 현재는 중단 상태, 새로운 법안 통과 대기중



"어느 정도 진전사항을 보였지만 지금은 실험적 단계이므로 문제를 찾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라울 카스트로, 2014년 4월)

문제점

- 정부의 동기는 수익이 없는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었지, 사회주의 형태의 재산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 중개조직에 대한 의존 : 자치개념을 찾아볼 수 없음
- "사전" 이 아닌 "사후" 트레이닝
- 협동주의 원칙, 규칙과 규범, 내부 규정에 대한 지식 부재
- 투입물 및 자본재 도매시장의 부재, 투자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의 부재 : 공기업과 민간 부문의 느슨한 연계
-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의지

"우리는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심했고 즉각 10여개의 건축 협동조합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결과나 문제점을 분석한 사례가 있는가?"

(2017년 7월 라울 카스트로)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직원이 되는 법을 잊고 구성원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협동조합의 대표가 되는 것은 일반 상점의 매니저 직책을 맡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규율의 부재, 자원의 남용과 관련된 낡은 악덕이 남아있다."

(Mirurjia Ramírez, 쿠바 국내교역부)

쿠바차관 René Hernández Castellanos 는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

업적

- CCS : 채소의 75.6%, 과일의 83.8%, 옥수수의 82.1%, 콩의 77.9%, 우유의 63.9%, 감귤류의 53%, 쌀의 52.3% 생산
- CTIS: 명확한 결과: 공급 증가,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 향상, 구성원들의 소속감 강화, 소득의 증가
- 공기업(식량, 연료, 서비스)과의 관계 개선 : 농업협동조합과 자영업자
- 풀뿌리 협동조합은 규범, 시장, 경제적 경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여준다.
- 사회적 책임과 커뮤니티 대한 기여의식 상승





ARTECORTE 커뮤니티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https://artecorte.org facebook.com/Artecorte instagram.com/ArtecorteCuba twitter.com/ArtecorteCuba

Gilberto Valladares
ARTECORTE
info@artecorte.org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공용공간을 변경 사용





민관 파트너십의 결과



SSE의 전략적 중요성

- 포용적 지역발전에 기여해 경제성장을 확산
- 수입 재분배를 위한 재정정책을 뒷받침
- 민간, 공공부문 노동자, 협동조합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mark>사회적 환경적 기여</mark> 증가
- 연합재산의 역할 강화
- 생산적 결합과 사회적 환경적 시너지 상승
- 국가소유 재산에서 민중의 사회적 재산으로의 이동을 뒷받침

SSE를 위협하는 요소들

- 소유주의 이익과 노동자의 급여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표면화하는 사업적 논리
- 아이디어 유출(창립 구성원, 리더)
- 조직이 커지면 인간적 관계가 조직적 관계로 바뀜
- 국가의 역할(보완적, 시너지 작용) 경시: 사회적, 환경적 책임 외면
- SSE를 지원하고 함께 구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 관계기관의 <mark>의지와</mark> 기술 부족
- 의존과 간섭을 조장하는 <mark>공공 정책</mark>. 협동조합을 저부가가치 생산 구조로 치부함.
- 노동자의 권리 상실, 리더십과 거버넌스 구조에서 <mark>여성의 종속</mark> 당연시 하는 경향

쿠바를 위한 제안

-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SSE를 수정된 사회주의 모델에 적응, 통합시킨다. 이를 위한 공공 정책을 추진한다.
-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위한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SSE 및 비국가 조직의 활동과 도시 발전 전략을 통합시킨다.
- 지방정부, 단체, 대학간 연계를 통해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를 구축 하고 SSE에 신 과학 기술을 소개
- 학계는 공간을 더욱 개방하고 대학교육과정과 정규 교육과정 외의 수업을 마련하여 SSE와의 연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연구, 토론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입법자에게 제안

쿠바를 위한 제안

- 전 부문에 걸쳐 <mark>새롭고 파격적</mark>이면서도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 새로운 시장과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협동조합의 등장을 유도
- 협동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를 향해 협동조합을 대변하는 조직,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관
 - 프로모션, 훈련, 기술지원, 협업, 협동조합간 교류
- 책임 있는 해외 파트너와 함께 해외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로 말미암은 사회적 환경적 책임의 메커니즘을 기존의 메커니즘과 통합한다.
- 쿠바의 시민사회와 대중매체는 SSE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배워야 할 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Rafael Betancourt rbetancourt3114@gmail.com



Red Cubana de Economía Social y Solidaria y Responsabilidad Social Empresa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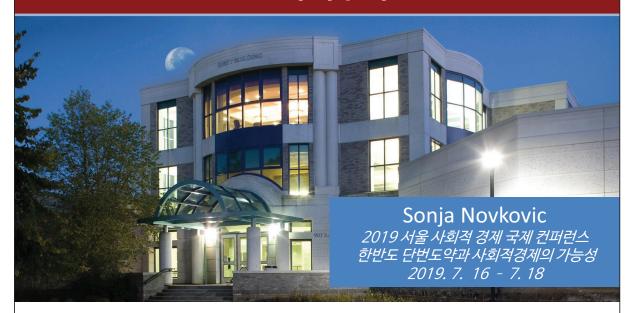








유고슬라비아의 경험: 시장사회주의와 포스트 사회주의 전환







INTERNATIONAL CENTRE for CO-OPERATIVE MANAGEMENT

유고슬라비아의 자주 관리 사회주의



- 1946-1950 중앙계획
- 1950-1974 자주관리
- 1975-1988 권력 분산, 연대노동단체조직
- 1988-1990 자유화와 자본주의개혁
- 1991 유고슬라비아연방 해체





INTERNATIONAL CENTRE for CO-OPERATIVE MANAGEMENT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 1945-1950 2차 세계 대전 이후
 - 풀뿌리 사회주의 시스템
 - 티토 대통령
 - 경제에 대한 정당의 통제
 - 사유재산 국유화
 - 중앙계획
 - 생산수단의 국유화





자주관리



- 1948년 소비에트연방 해체
- 1950년 새로운 경제모델 도입
 - 공공재산의 직접적 관리를 기업의 노동력에 맡김
 - 자주관리
 -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기업이 국가재산을 관리
 - 제조, 광산채굴, 통신, 교통, 무역, 농업, 임업





경제개혁



- 계획, 시장, 작업장 민주주의 결합
 - 전통적인 중앙계획경제를 보다 시장 중심적이고 지방 분권적인 제도로 변화
- 사회적 재산 체제 (기업은 사회 소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유할 수 있다. 하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





INTERNATIONAL CENTRE

계획



- 중앙계획(1946-1950)
- 타겟 중심 (1950-1960)
- 유도 계획 (1960-1974)
- 자주관리 계획(1975-1990) 분권화된 사회계약





민간 부문 제한



- 민간 부문의 확대를 법으로 제한
 - 농업용지의 사적소유 제한
 - 민영회사의 직원 수 제한
- 1989년 사회적 (자주관리) 부문이 GNP의 86.2% 차지
- 협동조합 자영업자가 시장 및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농업;예술;기술;특정 직종 종사자)





빠른 성장



- 1950년과 1975년 사이 투자 주도의 빠른 성장
- 농업에서 산업화된 경제로
- 국내 개발 기술과 산업 구축
- 동양·서양과의 해외무역





1970년대



- 높은 지역격차
- 실업
- 누적 채무 위기(전 세계 석유 파동)





1975년 연대 노동



- 자주관리기업의 내포구조
- 시장경제
-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권
- 지역 자치
- 은행은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비영리 기관
- 불균형이 크게 증가하고 지역간 격차 심화





1988년 - 1990년 시장개혁



- 자본주의 제도 도입
- 해외 직접 투자
- 무제한의 사유재산
- 사회적(자주관리)기업의 민영화
- 거시경제적 안정성





포스트 사회주의 개혁



- 슬로베니아는중앙유럽과동유럽에서가장발전이빠른나라였음
- 외국차관이나 자문 불필요
- 독자적 방식으로 점진적인 변화
 - 지속성 자주관리구조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
 - 정치적 안정
- 2004년 EU에 영입





포스트 사회주의 개혁



- 국제적 기부;조건부
- 해외 제도를 그대로 적용 불일치
- 민영화 오랜 기간 소요, 계속되는 난관
 - 내부자에게 판매(노동자 인수)
 - 관리우위 재벌경제





1990년대



- 내전;사회소유자산의 국유화 및 민영화
 - 민영화 방법으로서 노동자 매수
 - 노동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기업의 통제권을 지니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

(NGOs; 전쟁관련시민의노력; 서구지금유입과서구영향)





결론 (2014년 M Uvalic)



- 사회주의 목표와 이상을 시장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과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
- 경로 의존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정책





사회주의 제도



- 자체적으로 발전한 사회적경제
 - vs. 새로운 '사회적 기업'
- *Kamensko* 이야기 (크로아티아)
 - 자주관리 회사
 - 경영자 기회주의 (2006년 제정된 법이 자산 수탈을 허용; 회계정산이 끝나기 전에 과세; 약한 정책과제도)
 - 회사를 잃게 됨
 - 노동자들이 연대 '성공스토리'?





크로아티아의 오늘



- 관광업 발전
-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해외자산이 소유
- 모든 것을 수입 식료품,약품, 자동차에서 가구까지..
- 플랫폼 자본주의(에어비앤비; 부킹닷컴)
- 두뇌 유출





테크놀로지 & 사회적경제



- 몇가지 진화된 시도
- 윤리적 은행 협동조합
 - 험난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
- NGOs, 시민사회
 - 각종 연대의 종류와 수가 많아짐
 - 자금조달경쟁 특히 유럽사회기금에 대한 경쟁
 - 정부정책과 제도의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주류 경제보다는 비주류 경제에 머무름







Thank you!

snovkovic@smu.ca







중국 농업 현황: 역사, 도전, 최근의 농업 정책

Agrarian Situation in China:

History, Challenge and Recent Rural Policies

저우리(周立 Zhou Li)

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부

School of Agriculture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Renmin University of China

www.sard.ruc.edu.cn

zhouli@ruc.edu.cn

요약 Abstract

- a 중국 농업의 기적 Chinese Agrarian Miracle:
- 중국의 식량 생산과 인구는 급속히 증가했으며 일인당 식량 생산은 두 배로 늘었다. 곡물 수확량은 15년 연속(2004-2018) 풍작 China's Food production and population increased rapidly, and food per capita doubled. Grain output big harvest for the 15 consecutive year (2004-2018).
- 농가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공공 근로와 서비스, 복지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Farmers' income continually increased, Public work, service and welfare much improved.
- a 중국 농업의 위기 Chinese Agrarian Crisis:
-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resources is running out,
- 3대 생산요인(노동, 자본, 토지)이 농촌 지역에서 유출되고 있다.
 3 production factors(labor, capital and land) are flow out of rural area,
- 3대 국가 안보(식량 안보, 식품 안전, 식량 주권)가 도전받고 있다. 3 national securities(food security, food safety and food sovereignty) face challenges.
- 기적과 위기의 근원은 동일하다. They are from the same source (같은 뿌리)?
- 중국 농업의 성과는 인상적이지만 되풀이하긴 어렵다. Achievement of Chinese agriculture is striking but it's hard to replicate.

주요 내용 Contents

1. 배경 : 중국농업의 역사와 현실에서의 긴장감
Background on Chinese Agrarian Issues: History and Present

2. 3농의 기적 : 1978년 이후 Chinese Agrarian Miracle since 1978

3. 3농의 위기 : 1990년대 중반 이후 Chinese Agrarian Crisis since mid-1990s

4. 중국의 기적과 위기는 같은 뿌리에 있다?
Chinese miracle and crisis are from the same source?

5. 중국농업의 경험과 3농의 미래 전망 Experience and Prospects





1.배경: 중국농업의역사와현실에서의긴장감

Shortage and T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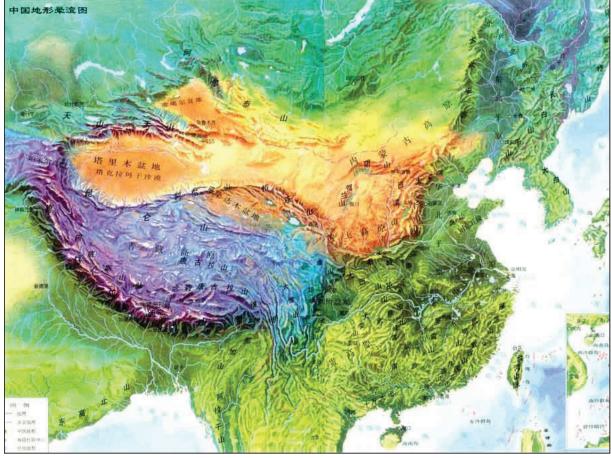
Background on Chinese Agrarian Issues: History and Present

1. 현실에서의 긴장감 Background on Agriculture Resources- present









중국 3계단 지형

3 Ladder Terrain:

첫째 계단 1st Ladder:
> 4000M(청하이-티베트고원
Qinghai-Tibet Plateau, 24%)
둘째 계단 2nd Ladder:
1000-2000M(세개의고원과
세개의분지3high plateau and
3basins)
셋째 계단 3rd Ladder:
(500M(구릉과평원hilly and plain)

7산(山)2수(水)1전(田) 70% 산 Mountain 20% 물 Water 10% 농지 Agrarian land (12% 경지 arable land, 1억 3천만 Ha.130 Million Ha. Vs 인도 1억 6천만 Ha. India 160 Million Ha.)



첫째 계단1st Ladder: 칭하이-티베트 고원 > 40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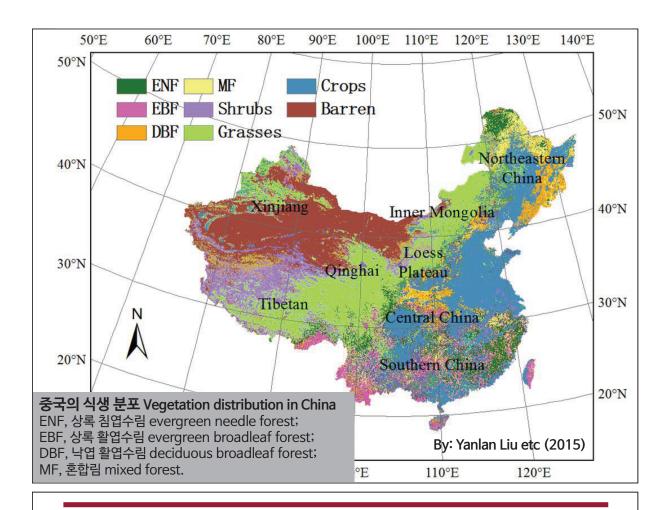
: Qinghai-Tibet Plateau > 4000M



中國人民大學 RENMIN UNIVERSITY OF CHINA







긴장,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극한 불균형 Tension and Imbalance in Space and time

- 자원제약과농업발전의환경보호문제
 - □ 물과 토양이 충분한 평원은 전체 1/8일 뿐으로 주로 연해지역에 집중됨. 산업농업경제와 도시의 중심이 연해 지역 평원에 집중됨.
 - □ 지역격차는 벌어질 수 밖에 없으며, 연해도시 지가(地價)의 필연적 상승
 - □ 경작에 적합한 시기: 동북 지역 100 ~150일, 화북 지역은 200일 미만, 서북부 황토고원 175일 미만, 장강 (长江)유역 500일, 쓰촨(四川) 분지 325일 정도

- Resource constrain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blems
 - ☐ For 7/8 of plain areas in China, the water and soil resources don't match. The rest mainly locate at coastland areas in which the agrarian and industrial economy and big cities concentrate. The land prices in coastland cities will certainly rise due to the widening regional differences.
 - ☐ Suitable cultivation days: Northeast China:100-150



전세계 경작지 사용현황

Global usage of cultivated land

- 전세계 경작지 사용현황
 - □ 라틴아메리카 12%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
 - □ 북아메리카와 유럽 50%
 - □ 아시아지역 100%에 가까움
- 당(唐)번성기(713-756A.D.)

"개원(开元), 천보(天宝)시기에 나라가 부강하여 높고 깊은 산 골짜기도 모두 농사를 지었다."

*개원(开元)시기: 713년 12월~741년12월 천보(天宝)시기: 742년 1월~756년 7월

- Global usage of cultivated land
 - □ 12% in Latin America
 - □ 20% in Sub-Saharan Africa
 - □ 50% in North America and in Europe
 - □ almost 100% in Asia
- Tang Poetry: During the reign of the flourishing Tang Dynasty (713-756A.D.), Everyone strive. Noland leave unused (existed big conflicts between more human and less land.)



15

1.2 역사에서의 긴장감

Background on Agriculture Resources-history











Oracle (14C.BC)



(金文) Bronze (11C. BC)



(小篆) LST Seal (200 BC)



번체 (繁体) **Traditional**



간체(简体) Simplified

버릴 '기(弃)' (Qi)

1) Abandoned(adj.)

2) Abandon, discard, throw away, relinquish(v) Abandoned Baby

'기아' 弃婴(Qi Ying) = 버린 아이



1930s Beijing





천년 간 지속된 농경문명의 인구 압박 Population Pressure of Cultivation Culture

- **토지에 대한 인구 압박 (일인당 경작면적)**The pressure of population on the land (per capita cultivated land)
- 전체 인구에 대한 관리의 압박 (관리의 비율)
 The pressure of officials on the population
 (officials-people ratio)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토지 자원에 미치는 압박 The pressure of population on the land

- 《주례(周礼)》(1100-500BC): "만약 일년 일모작하는 좋은 땅이라면 집집마다 백무(一百亩)를 얻을 수 있고, 일년 일모작 후 휴경작을 하는 토지라면, 집집마다 2백무(二百亩)를 얻고, 일년 경작 후 2년을 쉬어야 하는 땅이라면 집집마다 3백 무(三百亩)를 얻을 수 있다. (不易之地家百亩,一易之地家二百亩,再易之地家三百亩)"(100-300Mu/Family 7-20 Ha/Family)
- 전국시기(475-221BC): "한 집당 백 무(百亩)를 전(田)으로 하면, 8식구가 한 가족인 집은 굶지 않는다. (百亩之田,一夫耕之,八口之家,可以无饥"(맹자)(100 Mu/Family 7 Ha/Family)
- 당(唐) 번성기(713-739): "높은 산 깊은 골짜기도 모두 농사를 지었다. (四海之内, 高山绝壑, 来耜亦满)"(원결(元结), 약719~772년)(No land leave unused)
- 강건성세(康乾盛世: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1713-1799) : "한 살 아이도 1명으로 계산하여 약 4무를 얻는(计一岁一人之食, 约得四亩"(홍량길(洪亮吉)) (4Mu/person 0.27 Ha/person)



역대 중국의 인구와 토지 변화수치 Change of Population and Cultivated Land (1Ha=15Mu)

왕조	기원전	인구(백만)	경작지(백만 무亩)	일인당 경작면적(亩/인)
Dynasty	Year	Population (million)	Cultivated land (million mu)	per capita cultivated land (mu/person)
서한 Western Han	2	59.0	827	14.02
동한 Eastern Han	105	53.2	535	10.06
당(唐) Tang	775	80.8	1,430	17.70
송나라 초기 Early Song	976	40.4	255	6.31
북송 Northern Song	1072	100.0	660	6.60
명 Ming	1381	59.0	367	6.22
명 Ming	1393	65.0	370	5.69
명 Ming	1600	120.0	500	4.17
청 Qing	1662	83.0	713	8.59
청 Qing	1774	268.0	986	3.68
청 Qing	1850	410.0	1,210	2.95
2018	2018	1390.1	2,023	1.45 (〈0.1Ha)

*자료출처:자오강, 천중이〈중국토지제도사〉,대만경련출판사,1984. 후환용,장샨위〈중국인구지리〉,화동사범대학출판사, 1986. 량팡중〈역대인구, 전호,전부통계〉(상해인민출판사),1980. 우후이〈중국역대양식묘산연구〉,농업출판다,1984. 궈칭, 후안강〈중국공업화문제 탐구〉, 중국과학기술출판사,1991,p.48. 2018년 국가통계국자료를 인용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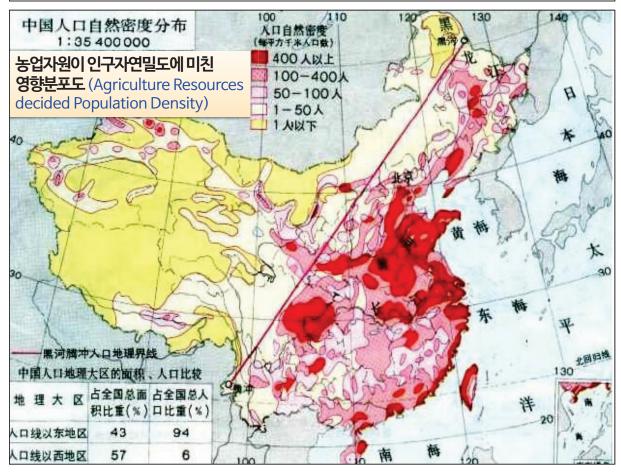


역대 중국의 무(亩)당 식량 생산량 변화 추이 The Change of Grain Output Per Mu

시기	경작면적 (백만 무亩)	경작면적 (백만 무亩)	인구 (백만명)	일인당 식량 (무亩/명)	무亩당 생산량 (g/an亩)
Period	Cultivated Land (million mu)	Grainfield (million mu)	Population (million)	Per Capita Grainfield (mu/person)	Grain Output Per Mu (0.5kg/mu)
서한말기 Latest Stage of Western Han 8 AD	238	224	60	3.76	264
당唐 Tang 900	211	199	53	3.76	334
송宋 Song 1100	415	390	104	3.75	309
명明 Ming 1500	465	420	130	3.23	34
청나라 중엽 Middle Qing 1750	727	618	361	1.71	367
2018	2026	1755.55	1395.38	1.26	750(5621kg/Ha)

*자료출처 : 우후이〈중국역대식량무산연구〉,농업출판사,1984년. 궈칭,후안강〈중국공업화문제탐구〉,중국과학기술출판사,1991년,48페이지. 2018년 국가통계국자료를 인용하여 필자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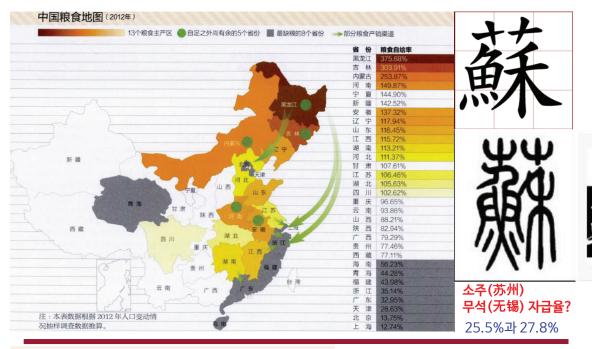




중국식량지도

소호숙(苏湖熟) → 호광숙(湖广熟) → 동북숙(东北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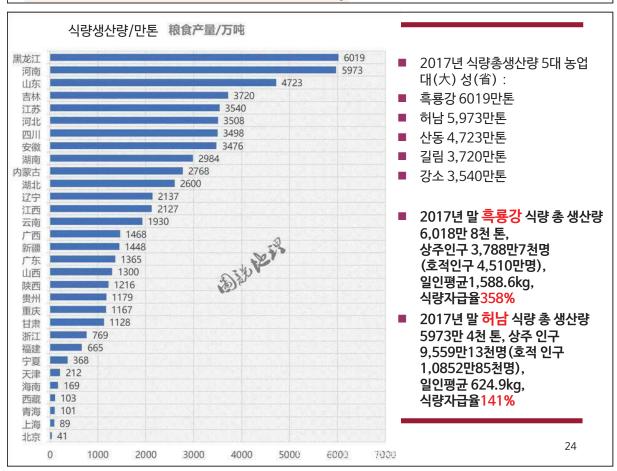
송宋과원元나라시기 (1127년천도) 명明과청清 (1645이익원李釜源) 현재



2017년 말,

소주 식량총생산량 92만3천 톤, 상주 인구 1,068만4천명, 일인 평균86.4kg 무석 식량총생산량 55만1천5백만 톤, 상주 인구 655만3천명, 일인평균 84.2kg

400kg/명. 2018년 중국전체 444.2kg/aud, 각각19.45%과 18.95%



소결1. 부족과 긴장감 Shortage and Tension

- 중국, 농업 자원 부족으로 인한 긴장감 상존 tension from shortage of agricultural resources
- 긴장감은 중국 역사와 함께해 왔음 Chinese history has been accompanied by it.
- 긴장감 또한 중국의 현실임 It is also the reality of China.
- 시간과 공간에 따라 농업 자원의 불균등하게 분포했고 이는 긴장감을 가중시킴
 Uneven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resources aggravated the tension.



25

농업과 농촌을 떠날 수 없고, 소규모 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됨 Small Farmers play key role

- 제도화된 반공반경(半工半耕:Half Working and Half Farming)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단일화되는 소농가정이 앞으로 오래 지속될 것
 - Institutionalized small-scale peasant households, Half-work and Half-tillage, combine production with consumption, will exist for a long time.
 - □ 평균 노동경작면적: 미국/중국=357배 호주/중국=382배 캐나다/중국=590배 Per capita tillage area: US/China = 357 times Australia/China = 382 times Canada/China = 590 times
 - □ 일본과 한국, 약 2배 Japan and Korea, about 2 times





2. "3농"의 기적: 1978년 이후

Chinese Agrarian Miracle: since 1978

27

세 가지 측면 Three Aspects

- **농업생산량과 인구 수**: <mark>증산</mark> (2004-2018 15년 연속)
- **농민수입과 생활 환경**: **수입 증대** (2010년 이후 도농수입격차 다소 축소)
- **농촌상황과 공공사업**: <mark>개선</mark> (2002년 이후 공공사업과 공공서비스 점진적 보급)

Food production and population : increased

China's grain output bumper harvest for 15 consecutive year (2004-2018)

■ Farmer's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impro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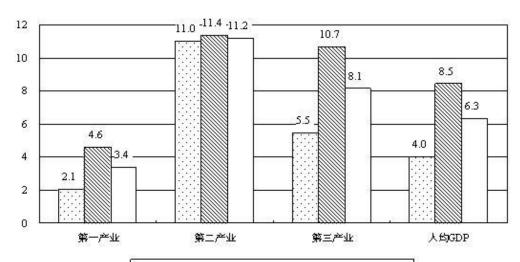
(narrowed rural-urban income gap since 2010)

Rural conditions and Public Serviceimproved

(developed public work and service since 2002)



2.1 농업에서의 성과 Agri. achie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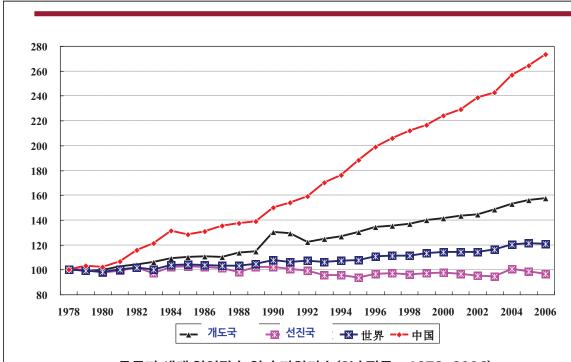
□1952-1978年增% □1978-2006年增% □1952-2006年增%

1952 - 2006년 산업증가액과 일인당 GDP 연간 성장률(비교가격, %)

Added value of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Vs. increase rate of GDP per capita (1952-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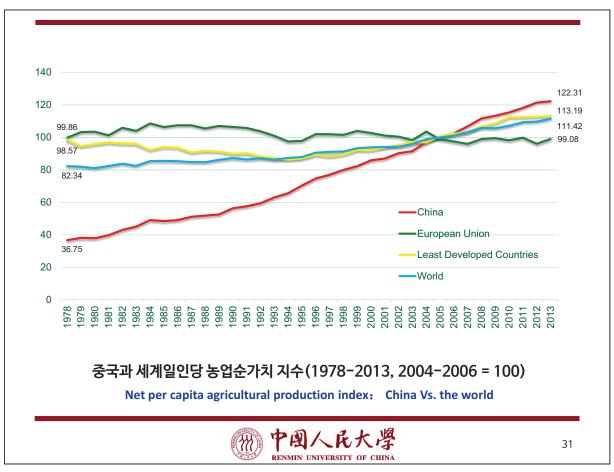
29



중국과 세계 일인당 농업 순가치지수(3년 평균, 1978-2006)

Per capita agricultural net value index: China Vs. the world 1976=100





중국의 일인당 식량 생산량(kg/명) (1949-2018) 중국의 일인당 곡물 수확량 China Grain Per capita 2018/19: 471.48KG(226%,1949) 세계 평균 Global average (2018/19): 360.8KG (중국 China 130.38%) 중국의 인구 대비 식량 생산 (1949-2015) Food Vs. Population of China 500.00 1600 452.08 곡물 수확량(백만톤) 450.00 1400 연말 인구(백만명) 400.00 1374.62 1200 일인당 곡물 생산량(kg) 350.00 1000 300.00 800 250.00 621.435 208.95 200.00 600 150.00 541.67 400 100.00 113 184 200 50.00 대약진운동(1958,기근1959-1961)→점진적개혁 (1978-) Great Leap Forward (1958, famine 1959–1961) \rightarrow Gradual Reform (1978–) 0.00 출처중국 통계 연감 Source China Statistical Yearbook 中國人民大學 RENMIN UNIVERSITY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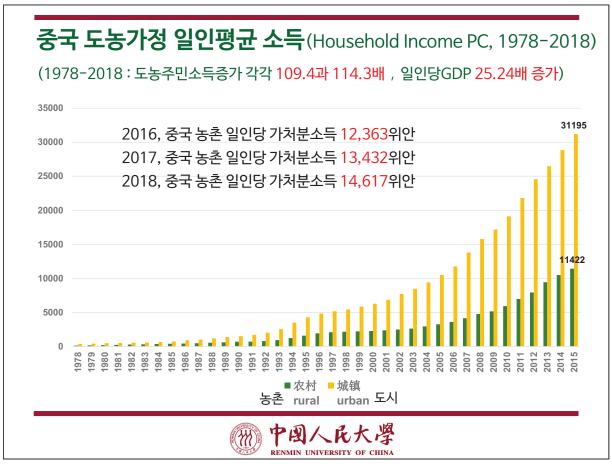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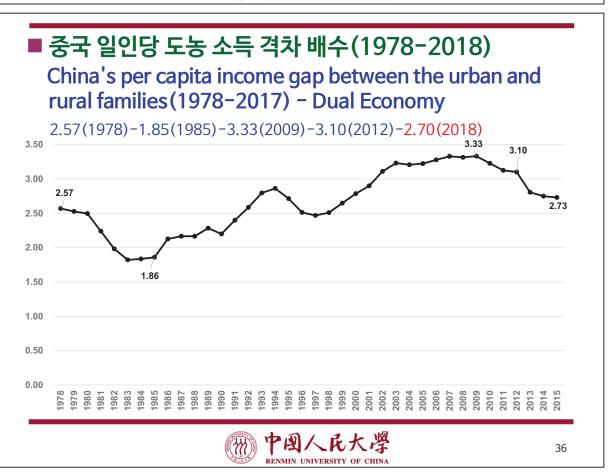
2.2 농민의 수입과 복지상황 개선

Farmer's income and welfare: improved

- 농민 수입의 지속적인 성장
- Farmers' income continually increased
- 농촌 공공사업과 공공서비스로 복지 개선
- Public work, service and welfare much improved







2.3 농촌의 면모 개선 Rural situation improved

- 원자바오(温家宝) (2012.2): 2002년이후,
 - □ 272만km의 농촌도로 건설
 - □ 농촌 인구 3억2천6백만명의 식수안전문제 해결
 - □ 농촌 바이오매스 사용 가구 3000여 가구 증가
 - □ 농촌의 위험낙후가옥 460여만 채 개조
 - □ 1억 3천만 명 학생,무상 의무교육혜택
 - □ 농촌의 의료보험보급율 97% 달성
 - □ 농촌최저생계보장시스템 5300여만 명 혜택
 - □ 농촌노령보험 시범사업, 중국 전체 현(縣) 60 %까지 확대, 7,800 만명 이상의 농민 연금수령

- By Premier Wen Jiabao (2012.2): Since 2002,
 - 2.72 million-km-long rural roads were built or rebuilt
 - ☐ Water safety problems of 326 million rural households were solved
 - ☐ More than 30 million families become new rural biogas users
 - ☐ More than 4.6 million dilapidated houses were renovated
 - ☐ 130 million rural students were benefited from 9-year compulsory education
 - ☐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ervice covers 97% of farmers
 - ☐ Rural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covers 53 million people
 - ☐ Pilot project for the new type of old-age insurance for rural residents, extended to 60% of counties and over 78 million farmers received pension



37

2012년 이후 새로운 진전 Aft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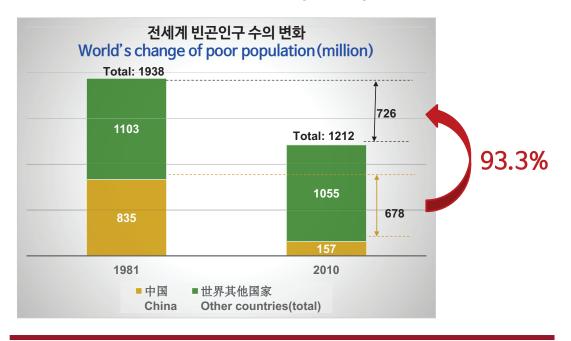
- (1) 식량 15년 연속
- (2) 혁신적 발전 : 대대적인 농업현대화 추진
- (3) 조화로운 발전 : 도농 발전 단일화 추진
- (4) 녹색성장 : 농업의 지속가능성장력 확충
- (5) 개방적 발전 : 농업의 대외개방수준 제고
- (6) 공유성장 : 농촌빈곤인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 (1) the grain output bumper harvest for 15 consecutive year (2004-2018)
- (2) innovative development : agricultural modernization
- (3) harmonious development : integration of urban-rural development
- (4) green development : enhance the ability of agri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 (5) open development:
 raising the level of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in agriculture
- (6) shareable development : poverty alleviation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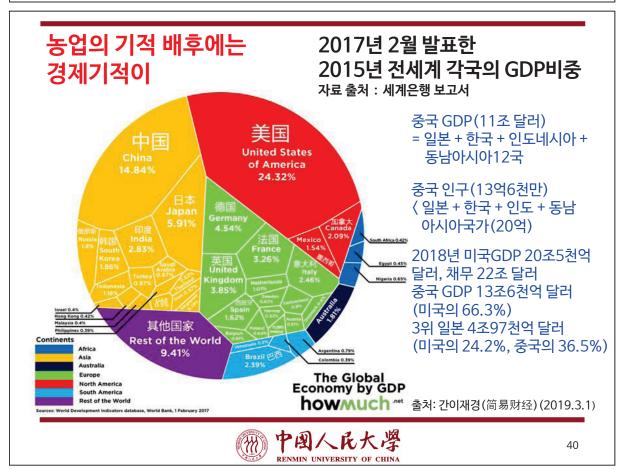


중국의 전세계 빈곤퇴치 기여도

China's contribution to World's poverty alleviation







소결2. 유일무이한 농업의 기적

Unique Agriculture Miracle

- 1978년 이후, 중국 농업의 기적은 분명 존재했음
 - a really Agri. Miracle after 1978
 - □ 농업 생산량 지속적인 증가

Continued increase in agricultural output (14 yrs. bumper harvest, 12년 연속 증가 → 14년 풍작)

- □ 농민 소득의 꾸준한 증가 Increasing farmers' income ()11 times, index)
- □ 농촌의 면모 개선 중
 Continued improvement in rural areas
 (7 reaching all villages : 상수도/도로/전력/전화/tv/인터넷/금융)
- 이는 세계 농업사(史)의 기적으로, 인류의 복지수준을 개선함 것임 Miracle of the world, Welfare of the world



41



3. "3농"의 위기: 1990년 중반 이후

Chinese Agrarian Crisis since mid-1990s

3.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중국 농업의 위기

Chinese Agrarian Crisis since mid-199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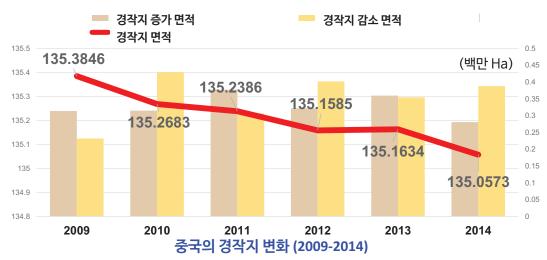
- 지속불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 (3 dimensional of unsustainability)
 - 3.1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Resources is Running Out
 - 3.2 생산 요인(노동, 자본, 토지)이 농촌 지역에서 유출되고 있다
 Production Factors(labor, Capital and Land) Flow out of Rural Area
 - 3.3 국가 안보가 도전받고 있다 National Securities Face Challenges.
 - □ 식량 안보 Food Security
 - □ 식량 안전 Food Safety
 - □ 식량 주권 Food Sovereignty



43

3.1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Resources is running out

3.1.1 토지: 경작지 감소 Land: Decreasing of cultivated land



The change of cultivated area in China

자료 출처: 국토자원부 홈페이지—중국국토자원공보—토지자원 http://data.mlr.gov.cn/



3.1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Resources is running out

3.1.2 토지: 과잉 경작 Land : Over-cultiv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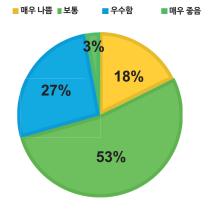
15등급으로 매긴 중국 경작지의 토질

Chinese cultivated land assessed as 15 Grades:

 $1\sim$ 4 : 매우 나쁨 Worst $5\sim$ 8 : 보통 Middle

 $9\sim12$: 우수함 Excellent $13\sim15$: 매우 좋음 Best

중국 경작지의 토질 (2015) THE QUALITY OF CULTIVATED LAND IN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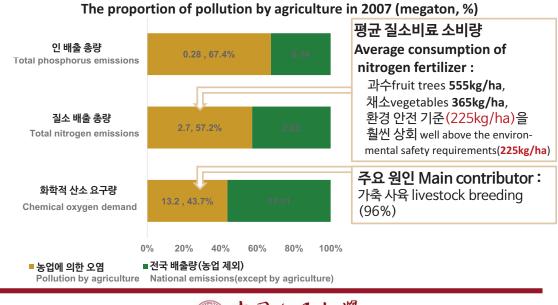


45

3.1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Resources is running out

3.1.3 비점 오염원 non-point source pollution

2007년 농업에 의한 오염 비율(메가톤, %)



3.1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Resources is running out

3.1.4 토지: 비료, 농약 및 호르몬의 남용

Land: the overuse of fertilizer, pesticide and hormone



꽃을 피우는 네 가지 집약 양식 방법

- 찍어 묻히기 : 오이, 주로 호르몬 자극
- **화분 바르기**: 가지, 붓으로 성장 호르몬을 암꽃 화분에 묻히기, 처음에는 꽃이 핀 두번째 날부터 화분을 묻히고, 그 후에는 이틀에 한번씩 묻힘
- 점 찍기 : 사과 • 짝짓기 : 여주

"Four treatment of flowers" in the intensive farming:

- **Dip flowers**—cucumber, mainly for hormone stimulation.
- Smear flowers—eggplant, using writing brush to smear growth hormone onto flowers.
- Dot flowers—apple.
- Pair flowers— bitter gou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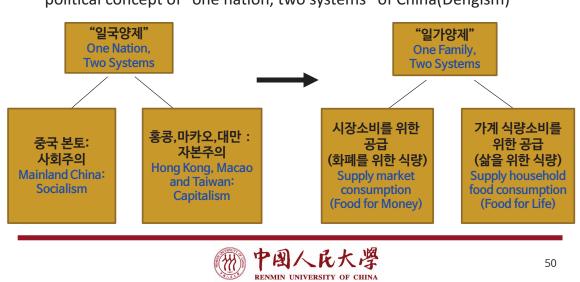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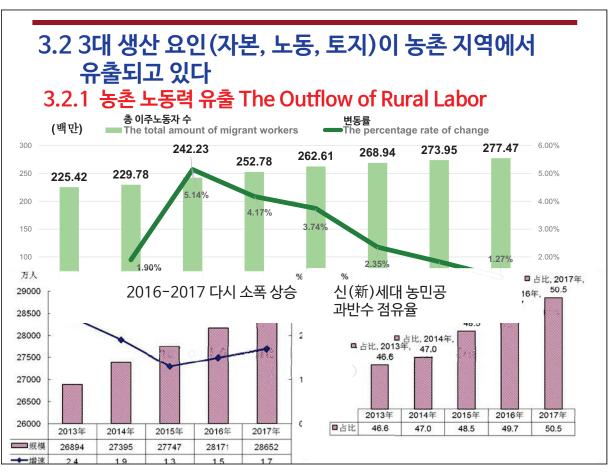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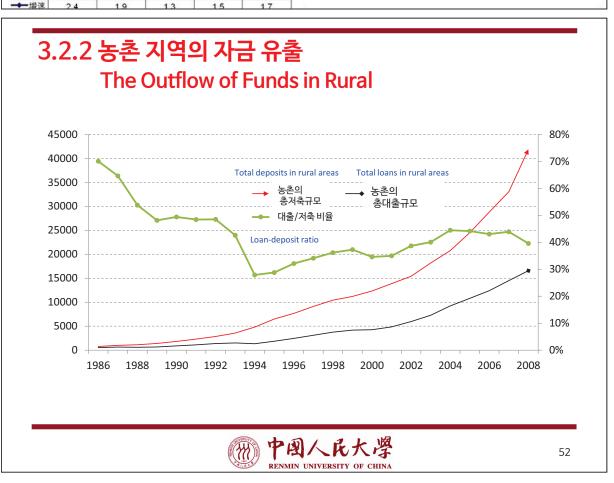
일가양제(一家两制) One Family, Two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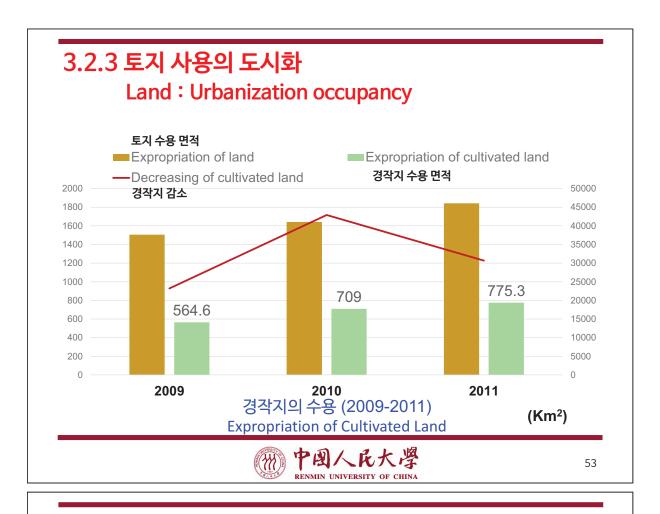
■ "일가양제"의 개념은 "일국양제"라는 중국의 유명한 정치 개념(덩샤오핑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

The concept of "one family, two systems" has its origin in the famous political concept of "one nation, two systems" of China(Dengism)









3.3 3대 국가 안보가 도전 받고 있다

Three National securities face challenges

- 식량 안보 Food Security
- 식품 안전 Food Safety
- 식량 주권 Food Sovereignty



중국 농업과 식품위기

Crisis: Two Faces -2

- 식품안전위협(Crisis of Food safety)
 - □ "매우 부끄럽다. 먹고 살만해지자 식품안전이 문제가 되었다." (왕치산王岐山, 2011)

Premier Wangqishan: It is very ashamed, there is a problem of food safety, just after we can reach the level of enough food.

□ 《소강(小康)》가장 주목하는 문제 10가지: 식품안전 6년 연속 1위 차지 (2012-2017)

Top 10 Focused Issues: The problem of Food Safety ranked No. 1 (2012–2017) in the survey of 《Xiaokang》



중국의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과정 중, 가장 많이 주목하는 문제 10가지 2017年度中国全面小康进程中最受关注的十大焦点问题 $(2009 \sim 2017)$ 《소강(小康)》잡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排名 年度 年度 年度 年度 年度 年度 年度 年度 食品安全 食品安全 食品安全 食品安全 食品 应收 腐败 医疗 养老 住房 房价 物价 物价 安全 问题 问題 改革 政策 改革 腐败 问题 医疗改革 医疗改革 食品 医疗 医疗 贫富 医疗 贫富 4 房价 房价 保护 改革 差距 差距 改革 安全 改革 教育改革 腐败 问题 腐败 问题 住房 住房 贫富 社会 贫富 就业 环境 住房 物价 改革 改革 改革 差距 保障 差距 问题 保护 社会保障 环境 保护 社会道 社会 信用 制与公 共卫生 就业 教育 教育 环境 就业 社会 教育 医疗 8 物价 改革 问题 改革 改革 保护 问题 保障 改革 配改革 社会道 民主 腐败 就业 住房 住房 教育 社会 养老 10 法治 问题 问题 改革 改革 德风气 改革 保障 政策

중국 농업과 식품위기

Crisis: Two Faces -2

- 지속 불가능한 농업 (Unsustainable agriculture)
 - □ 농업 비점오염원: 중국 최대의 오염원
 Non-point source pollution of agriculture: China's largest source of pollution
 - □ 토양오염: 토양의 1/10, 식품안전과 생태안전문제 (2억무(亩) / 20억 2천7만 무(亩)) Soil pollution: food safety and ecological safety problems in 1/10 of soil (200 million Mu/2.27 billion Mu)



중국 농업과 식품위기

Crisis: Two Faces -2

- 농촌 거버넌스 위기 (Crisis of Rural Governance)
 - □ 향촌자치의 와해(1949년 부터 향신(乡绅)퇴출) → 국가 거버넌스와 당정퇴출 Rural self-government collapsed
 - □ 3가지의 '방치(left-behind)된' 사람들: 386199부대 Three types of left-behind people (Women-Children- Old man)
 - □ 3원구조: 도시, 농촌, 도농; 농촌상주인구5억7천7백만+농민공2억8천7백만= 8억5천4백만명

Triad Structure: Urban population-Rural population-Migrant workers population



소결 3. 중국 농업의 위기와 곤경 crisis and predicament

■ 이중압박 (double extrusion):

- □ <mark>천장효과</mark> (대두→ 곡물면화기름설탕, 국제가격과 반대의 역전현상, 최고 상한가) Ceiling effect (WTO: soybean → grain, cotton, oil and sugar)
- □ 바닥효과 (생산원가상승, 노동력/지대/노동원가) Floor effect (raising cost, labor/land rent)

■ 이중제약(double constraints):

- □ 노란선에 접근 (WTO 감축대상 보조금(Amber Box)선을 넘어섬) Yellow line: Amber Box Subsidy has been close to the WTO line.
- □ 붉은 등이 켜짐 (무분별한 자원개발, 심각한 생태환경 악화)
 Red light: Over exploitation of resources, Deteriora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





4. 중국의 기적과 위기는 뿌리가 같다?

Chinese miracle and crisis are from the same source?

세 손으로 추는 춤 Three Hands

- 4.1 시장 보이지 않는 손 Market - Invisible hand
- 4.2 정부 보이는 손 Government - Visible hand
- 4.3 사회 제3의 손 이거나 몸 Society - The Third Hand, or even the body



61

4.1 시장 - 보이지 않는 손 Market - Invisible hand

- 기적을 이룬 배경: 호적제도개혁, 가족 단위 농업 생산 책임제, 안정적인 토지정책, 중국전체 농상품 시장 마련
 - household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with remuneration linked to output, stable land polic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 위기를 가져온 배경: 3농에서 노동력, 토지, 자금유출 발생 (비교이익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

Lead to crises: labor, land and capital flow out of the rural areas (as a result of huge difference in comparative gains)



4.2 정부-보이는 손

Government - Visible hand

- 황종즈(黄宗智): 중국의 독특한 국가체제는 지난 삼십 년간 중국경제성장의 '기적'을 가져온 주체이면서 같은 시기 발생한 사회와 환경 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이 국가 체제는 딱딱한 시스템으로 고형화될 수도 있고 '전환'중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 Philip Huang: China's unique national system is both the initiative body of China's miraculous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nd the main cause of contemporaneous social and environmental crises. It could solidify as a rigid system, or could be a system still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63

- 기적의 배경: 마오(毛)시기 수리시설건설사업, 1980년대 산업화 체제확산과 몇 가지 정책(예, 1호 문건 등)
- Lead to miracles: 1) water conservancy construction under Maoism; 2) the spread of the industrial system in 1980s; 3) some policies (e.g. the NO. 1 Document)
- 위기 발생 배경: 농업 산업화-농업확장 시스템의 마비, 유해요인 투입; WTO-농산품 자급률 감소, 이중압박과 이중제약; 도농 분리 ···
- Lead to crises: 1) the paralysis of agriculture industrialization and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input of harmful elements; 2) WTO-decline of self-sufficiency rate of agricultural products, double extrusion and double constraints; 3) urban-rural isolation...



농업 관련 중앙 1호 문건 주제 (1982-2016)

The NO. 1 Document

- 쌍포제(双包制:호별영농(包干到户)과 호별도급제(包产到户) 시행
- System of fixed output to households and work contracted to households
- 가족 단위 농업 생산 책임제
- The household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 토지책임계약기간 연장 15년 이상
- 1984 Lenthen the land contract period
 - 농부산품의 일괄구매 고정구매 시스템 폐지
- Abolish the system of unified and fixed state purchase of agricultural and sideline products
 - 농업의 제자리 찾기
- Put agriculture into suitable position
 - 농민소득 증진
- 2004 Increase farmers' income
 - 농업종합 생산력 제고
- Improve agricultural comprehensive productivity
 - ・신(新)농촌건설
- 2006 New rural reconstruction
 - 发展现代农业 농업의 현대화 발전 추진
- Develop modern agriculture

농업 관련 중앙 1호 문건 주제 (1982-2016)

The NO. 1 Document

- 농촌인프라 구축
- Agricultu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 농민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
 - Sustained increase in rural incomes
 - 도농균형발전
- Balance urban and rural development
 - 수리개혁발전
- Reform of water conservancy
 - 농업과학기술 혁신

- Agriculture technological innovation
 - 농업의 현대화 발전 촉진, 농촌성장 활력 증대
-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modern agriculture
- 전면적인 농촌개혁 심화, 농업의 현대화 추진
- Deepen rural reforms and accelerate agricultural modernization
 - 개혁혁신 확대, 농업의 현대화 추진
 - Intensify the reform and innovation and accelerate agricultural modernization
 - 발전이념 이행, 농업의 현대화 추진, 전면적인 소강사회 목표 실현
 Implement new development ideas, accelerate agricultural modernization, and achieve
 - Implement new development ideas, accelerate agricultural modernization, and achieve the goal of the all-round well-off society

후진타오, 원자바오 10년 간의 정책조치(원자바오, 2012): Measures taken for 2002-2012 (by Premier Wen Jiabao, 2012)

- (1) 농업세 폐지, 국가와 농민분배관계조정
- (2) 농업생산보조금 시행, 농업지지와 보호 강화
- (3) 농업의 대내외 개방
- (4) 집체산림권리제도 개혁추진
- (5) 농촌의무교육비 보장제도 개혁
- (6) 농촌사회보장정책 수립
- (7) 비합리적인 정책규제 철폐

- (1) Abolition of tariffs and adjustment of the distribution relationship
- (2) Subsidy, support and protection
- (3) Open to the outside and the inside
- (4) Reform of the system of collective forest rights
- (5) Reform of rural compulsory education funds safeguard mechanism
- (6) Establishment of social security system
- (7) Abolition of unreasonable policies and restrictions



67

두 손으로 추는 춤 - 시진핑 집권 후 Dance of two hands in Xi's era

- 시진핑(2014):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을 모두 사용하고, 시장과 정부 역할을 유기적으로 통일하며, 상호보완, 상호조정, 상호촉진의 구도를 마련……경제체제개혁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핵심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다루는데 있으므로, 자원배분 과정에서 시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보다 더 정부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Xi Jinping: Both "the invisible hand" and "the visible hand" should be utilized fully to form a situation in which the functions both of the market and of the government are unified organically, mutually complementary, coordinating and promoting The focal point of the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 lies in the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the core issue of which is to successfully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so that the market plays a decisive role in resources allocation and the government functions more effectively.



2012년 이후 새로운 정책 조치

New measures after 2012

- 농업의 공급측면 구조 개혁 (2016) Supply-side structural reform of agriculture (2016)
 - 경작지의 지력보호지원, 자원환경 관리 보조금 증대
 - □ 농산품 가격제도
 - 대두, 면화, 옥수수 가격 개혁, 농민의 이익수호
 - □ 금융보험정책
 - 금융자원을 통한 새로운 경영주체 지원
 - □ 부역조정정책
 - 우수한 농산품의 '해외진출' 추진

- Agricultural subsidy policies increase subsidies for resources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 Price frame of agricultural products price reform of soybean, cotton and corn.
- Finance and insurance policies help new types of management entities.
- Trade regulation policies

 encourage agricultural products of high quality to go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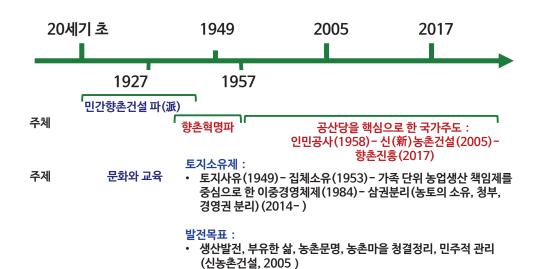


69

2017년 이후의 지역 재활성화 RURAL Revitalization since 2017

- 2017년 이후 국가 전략 a national strategy from 2017
- 5가지 지역재활성화 목표 5 Goals of rural Revitalization:
 - 산업 번영 Industry Thriving
 - 살기 좋은 생태환경 Ecologically Livable
 - 농촌지역 문명화 Rural Civilization
 - 효과적인 거버넌스 Effective Governing
 - 풍족한 삶 Better-off Life
- 3단계 발전론과 중국 몽(梦) 3 Steps & China Dream
 - 2020, 전면 소강小康 Institutions and policies
 - 2035, 농촌 현대화 Rural modernization
 - 2050, 부유하고 아름다운 현대화된 강국强国 Strong, Beautiful and R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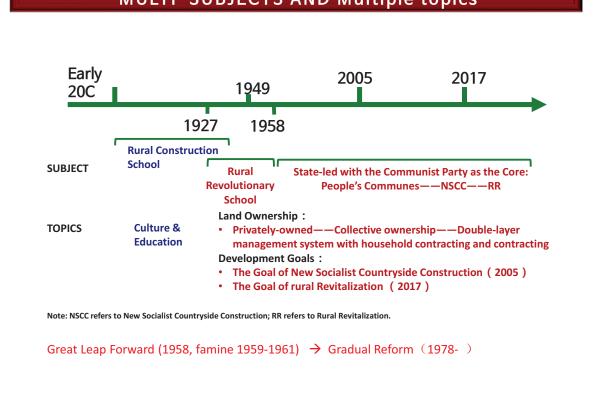
참고 : NSCC에 신농촌건설 언급; RR에 향촌 진흥 언급

대약진정책 Great Leap Forward (1958, 대기근 1959-1961) → 점진적 개혁 Gradual Reform (1978-)

(향촌진흥, 2017)

산업번영, 살기 좋은 생태환경, 농촌문명, 효과적인 거버넌스, 풍족한 삶

CHINA RURAL Revitalization of 100 Years: MULTI-SUBJECTS AND Multiple topics



중공19대 보고서의 "향촌진흥전략"

■ 농업농촌농민 문제는 국민경제와 민생의 근본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반드시 '3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mark>당(党)의 가장 중점 사업이다.</mark> 농업농촌을 우선 발전시키고, 산업번영, 살기 좋은 생태환경, 농촌지역 문명화, 효과적인 거버넌스, 풍족한 삶이라는 필요에 따라, 도농융합발전 체제와 정책시스템을 수립해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완비해, 농촌토지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청부 토지의 '3권'분리제도를 완비한다. 토지승포관계의 완정화와 장기적인 불변정책을 유지하며, 2차 토지승포제의 기한만료 후 다시 30년을 연장한다. 농촌집체재산권제도 개혁과 농민재산권 보장을 심화하여, 집체경제를 강화한다.

국가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중국인의 밥그릇은 확실하게 중국인의 손에 쥘 수 있도록 한다. 농업산업체계와 생산체계, 경영체제의 현대화로, 농업지원보호제도를 완비한다. 다양한 형식으로 규모경영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한다. 농업사회화 서비스 시스템 완비와 소농과 농업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농촌의 6차 산업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취업창업을 지원 독려하여 소득확대를 길을 넓혀 나간다. 농촌 기층의 인프라사업을 강화하고, 자치, 법치, 덕치를 결합한 향촌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충한다. 농업을 알고, 농촌과 농민을 사랑하는 '3농' 인재를 양성한다.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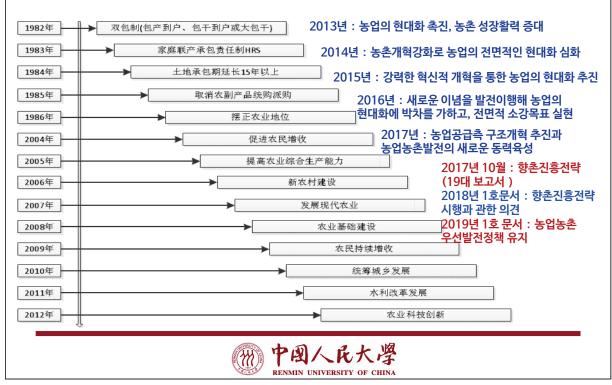
신시대,새로운 전략을 소<mark>환</mark>해 , 새로운 갈등문제를 해결하려 함

신시대 17대 전략내용

전략명칭	발표시기	상징성을 갖는 문건		
지속가 능 한 발전	1994	21세기 중국의제-21세기 중국의 인구, 환경과 발전에 관한 백서		
과학교육 입국 (흥국兴国)	1995	중공중앙국무원〈과학기술진보 촉진에 관한 결정〉		
인재강국	2002	2002-2005년 전국인재대오규획요강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2003	중공 16차 3중 전회 보고서		
혁신을 통한 성장	2012	중공 18대 보고서		
군민융합발전	2015	12차 전국인대 3차 회의 해방군대표단 전체회의		
향촌진흥	2017	중공 19대 보고서		



새로운 전략의 새로운 지원 - 농촌 관련 중앙1호 문서의 주제 (1982-2019)



중앙농촌공작회의: 추진 배경

- 2017년 12월 28일-29일
- 최고기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최고조직: 5급 당위원회(No.1 Project)
- 최고위치: 첫번째 백 년의 분투 목표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두 번째 백 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가는 길,

가장 힘들고 어려우며 복잡한 과제가 바로 농촌에 있고, 가장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기본 문제가 농촌에 있으며,

가장 큰 잠재력도 바로 농촌에 있다.

- 인민일보 사설, "대국 소농"을 기본 국정 농정과제로 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향혼진흥노선을 가야만 한다. 아래 내용 포함:
 - □ 3단계 발전
 - □ 7가지 노선



중앙 1호 문건: 향촌진흥전략에 관한 의견

(2018년 1월 2일 발표, 2월 4일 대외 발표)

■ 7항 기본원칙

- 1. 당이 관리하는 농촌사업 견지
- 2. 농업농촌 우선발전 견지
- 3. 농민의 주체적인 지위 견지
- 4. 향촌의 전면진흥 견지
- 5. 도농 융합발전 견지
- 6.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견지
- 7. 지역상황에 맞는 점진적 추진 견지
- 오랜 시간 꾸준히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

■ 5대 목표, 점진이행

- 1. 산업번영을 중점으로 : 농업의 질적성장 추진과 향혼발전의 새로운 동력 육성
- 2. 살기 <mark>좋은 생태환경</mark>: 농촌의 친환경 발전 추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구도 마련
- 3. <mark>농촌지역 문명화는 정책적 보장</mark> : 농촌 문화의 번영과 번성을 통해 농촌 문명의 새로운 기상 만들기
- 4.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토대: 농촌 기층의 인프라 사업 강화와 향촌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 5. <mark>풍족한 삶은 근본</mark>: 농촌 민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장시스템 강화와 아름다운 농촌의 새로운 기상 만들기
- 5+1. <u>민곤퇴치는 전제</u>: 打好精准脱贫攻坚战,增强贫困群众获得感 민곤퇴치 프로그램을 통해 민준계층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기



77

시진핑: "도시화"와"역(逆)도시화"의 시너지효과

2018년 3월7일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 광동성대표단심의

- 발전은 첫번째 임무
- 인재는 첫번째 자원
- 혁신은 첫번째 동력



- 도시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 한편으로, <mark>향촌진흥에도 활력이</mark> 필요하다. 뛰어난 인재들이 향촌이라는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민기업가가 농촌에서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
- 도시화, 역도시화 두 가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农村 농촌 역시 쇠락해서는 안되며, 도시와 농촌이 상부상보 윈윈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 ▶ 항행조정 (원톄쥔温铁军)



시진핑: 몇 가지 중대사업, 중대계획, 중대행동 배치

2018년 5월 31일, 중공중앙정치국: 《향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과 《빈곤퇴치 프로그램 3년 행동에 관한 지도의견》심의

- 향촌진흥전략규획 (2018 2022年) 사업의 중점과 정책조치를 세분화 시행하고, 몇 가지 중대사업, 중대계획, 중대행동 배치로 향후 5년간 중앙1호문건의 정책 틀 마련
- 각 급 당위원회와 정부기관은 다음내용에 대한 사상 인식을 강화한다. : 진심으로 향촌진흥전략을 시행 우선위치에 놓고, 당의 농촌사업관리 기준을 실제 이행하며, 농업농촌 우선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 각급 정부기관은 도농 융합, 통합설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 통합 이념을 수립하고, 향촌진흥규획 마련과 특별계획 혹은 해결방안을 세워, 향촌진흥사업이 계획대로 책임감을 갖고 진행되도록 한다.
- 사업이 끝나면 다음 사업을 추진하며, 일년 간의 사업 추진 완료 후 다음 년도 일을 추진하여, 농촌진흥사업에서 많은 농민이 더 많은 성취감과 행복감, 안전함을 느끼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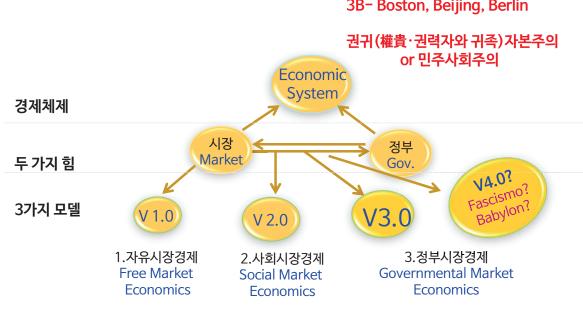


79

시장경제의 3가지, 그리고 네번째 단계?

(Three Versions of Market Economy → 4 Version?)

3B- Boston, Beijing, Berlin





"배태" (embedment) 와"탈배태" (disembedment)

— "윤리경제" (Moral Economy) 에서 "시장사회" (Market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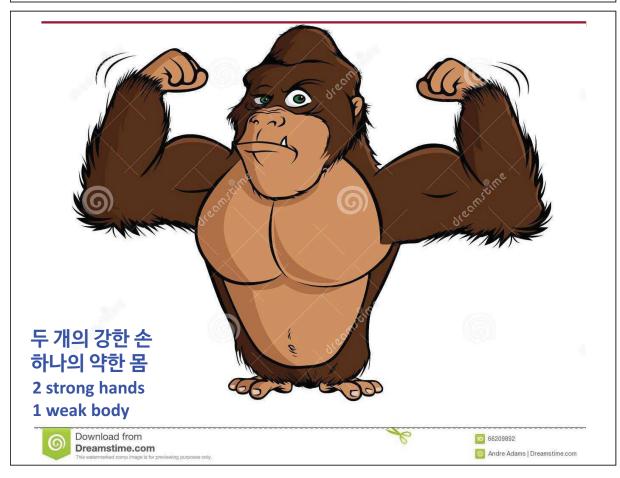


Karl Polanyi《거대한 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 -19C embedment 시장이 사회와 자연에 배태됨 19C- disembedment 시장이 사회에서 탈배태됨

두 개의 손 → 세 개의 손 2 → 3 hands:

- 1.maket(Invisible)
- 2.Govnment(Visible)
- **3.Society**(people and community, body)





4.3 사회 - 세 번째 손이거나 몸 Society - The third hand

- 기적의 배경: 근면절약의 문화, 강렬한 성장의지 농가의 이성(理性), 1980년대 말 노동력의 대량 이주
- Lead to miracles: culture of diligent and thrifty, strong desire for development rationality of farmer households, out migration for work since 1980s
- 위기의 배경: 원자화 탈조직화, 소비주의
- Lead to crisis: atomization de-organization, consumerism



83

소결4. 동전의 양면

Summary4. Two sides of One Coin

- 중국의 기적의 배후에는 중국의 위기가 Behind the miracles there is a crisis.
- 중국의 위기의 배후에는 새로운 중국의 기적 내포 Behind the crises there is a new miracle.
- 시장, 정부, 사회라는 세 가지 손이 함께 춤추는 과정에서, 기적과 위기를 동시에 보게 되며, 이는 같은 뿌리 Miracles and crises have the same root.
- 정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손이 협력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라는 세번째 손의 협조가 보다 필요함 We need not only the coordination of government and market, but also the society as "the third hand"







5. 중국 농업의 경험과 3농의 미래전망

Experience and Prospects

- 중국의 기적은 존재한다. Also there is a Chinese Miracle,
- 중국 농업의 성과는 인상적이다. 하지만 되풀이하긴 어렵다. Achievement of Chinese agriculture is striking, but it's hard to replicate.



87

5.1 중국 농업성장과 빈곤감소의 경험 Experience of Chinese Agri.

■ 전제조건 :

- (1)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환경
- (2) '경자유전'의 토지균등화와 수익배분 균등의 보편혜택
- (3)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특히 농업의 발전
- (4) 강력한 정당, 정부조직 그리고 동원 능력
- (5) 근검절약 문화전통과 강렬한 발전 의지

Precondition:

- (1) peaceful environment > 40 years
- (2) equalization of land: "land to the tiller"; general benefiting system of income distribution
- (3) Sustained economic growth, especially in agriculture
- (4) Powerful political party, effective organizing and mobilizing ability of government
- (5) Tradition of diligence and thrift culture: strong desire for progress



5.2 중국농업 전망 Prospects of Chinese Agri.

- 주제 : 농업의 현대화 발전과 현대화된 농업으로의 개조
 - (1) 엄격하고 철저한 경작지 보호와 수자원관리제도 시행
 - (2) 농촌기본경영제도 안정과 완비
 - (3) 지속적인 농업의 과학기술진보 추진
 - (4) 지속적인 농업지원과 보호 확대
 - (5) 향혼진흥과 농촌사업발전 추진

- Theme: developing and reforming modern agriculture
 - (1) top level of strict system: arable land protection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2) stabilize and complete system of basic rural management
 - (3) promot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 (4) strengthen agricultural support and protect
 - (5) promote rural reconstruction by rural revi



89

소결5. : 중국 농업 농촌 직면과제

Summary: Challenge to Chinese Agriculture

- 중국 농업 분야의 눈부신 성과에도 Achievement of Chinese 불구하고 성취경험 공유 및 시행이 아됨
 - 정치경제사회분야의 기본조건과 역사문화 배경
- 현대화 농업이라는 새로운 명제의 어려움
 - □ 3가지 요소?
 - □ 3가지 도전에 대한 대응?
 - □ 3개 손의 협력(특히 사회적 힘)

- agriculture is striking but it's hard to replicate.
 - ☐ Unique background of Politic, economy and society plus historical and cultural
- Challenge: Reform modern agriculture is getting severe
 - □ 3 industrial factors?
 - 3 challenges?
 - ☐ 3 hands (social body works)



토론: 강한 사회란?

Discussion: Strong Society?

- 세 개의 손을 가진 건강한 경제: 시장 효과, 정부 기능, 사회적 힘
- Healthy Economy with 3 hands:
 - ☐ Effective Market
 - ☐ Promising and enabling Government
 - ☐ Strong Society
- 어떻게 활력 있고 강하며 희망적인 사회를 만들 것인가? 농촌인구의 희망은?
- How to make society: Energetic? Strong? Have Hope?





서울 시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대변도약교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

둘째 날 2019. 07. 17.

서울 시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대변도약교 사회적 경제의 기능성

라운드테이블

'단번도약 개발전략'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 단번도약 개발전략은 무엇인가?
- · 제재 해제 이후 20년 뒤, '가장 이상적인 북한'의 모습은?
- · 단번도약 개발전략의 기술혁신 분야는 사회발전과 어떻게 만나는가?
- · 왜 경제개방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가?
- ·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개발과정의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기조발제]

단번도약, 사회적경제, 그리고 한반도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

2019년 세계는 대전환기에 있다. 대전환의 중심에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요약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현실이되어 간다. 또 사회적경제라는 이름하에 자본주의 후기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70여 년간 이룬 발전과 부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환경오염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70여 년 간존재해 왔던 국제개발에 대한 담론도 근대화 이론 (modernization theory)에 근거한 경제성장 담론에서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지속가능개발 담론으로 전환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2000년부터 시작된 지속가능개발 프레임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듯하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창하는 등 전례 없이 분위기 띄우기를 하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의 개발 전략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기껏해야 기존의 개발 전략에 지속가 능성을 추가하는 정도이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가능개발 담론이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유지(status quo)에 관한 가정이다. 다시 말해 국가 간에 또 국가 안에서 앞선 이들과 뒤선 이들의 격차와 그 격차의 좁힘에는 큰 관심이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선진국이 된 국가는 지속가능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추격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각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고속압축 성장 담론과 지속가능 성장 담론을 넘어 새로운 개발 담론이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그 대안을 우리는 '단번도약(leap-frogging)'으로 부른다. '단번도약(leap-frogging)' 은 한 사회 생산시스템이 전통적인 사회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스템으로 단숨에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사회발전 전략이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사회로 가장 빠르게 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산시스템의 전환이 개념의 중심에 있으나, 보조적으로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전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념적으로는 이미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 사회의 경로를 따라가는 '본 따르기'(benchmarking)와 대칭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이 아닌 혁신과 뛰어넘기 방식을 개발전략에 중심에 놓는다.

단번도약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윗물과 아랫물을 바꿀 수 있는" 개발담론이라는 것이다. 혁신적 뛰어넘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담론이다. 또 한 국가 안에서도 사회적 역동성이 크게 고무되어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 기회의 시간이 돌아오게 하는 개발 담론이다.

그렇다면 과연 단번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특히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단번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상황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4차 산업 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혁신과 사회적경제로 불리는 사회시스템 및 제도의 혁신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단번도약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단번 도약이 지향하는 목적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단번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찌 보면 직관적이 기까지 하다. 18세기 자연 물리학이 과학계뿐만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보는 방식 그리고 각국가가 운영되는 정치철학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은 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경로와 속도에 대한 한계를 파괴하고 있다. 유선전화를 시작으로 휴대폰으로 발전하던 통신 산업은 이제는 바로 휴대폰으로 그것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으로 단번도약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 금융제도, 특히 금융에의 접근(access to finance)을 위해 국민들의 은행계좌 개설을 주로 지원했던 개발 사업들은 이제 모바일 기반의 금융제도로 단번도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로 고소득국가 - 예전에는 선진국으로 불렸던- 가 4차 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저소득국가 - 예전에는 후진국으로 불렸던- 에게도 단번도약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인력과 기반 시설 등의 면에서 선진국, 특히 미국을 비롯한 몇몇 고소득국가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화 이론과 산업화 과정이 전부였던 과거에 비해 4차 산업은 저소득 국가들에게전에 없던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다음으로 본 발표의 주제인 사회적 경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활동." (2016년 8월 1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 의원 및 27인 발의).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2016년 10월 1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유승민 의원및 15인 발의)

위 법안들에게 언급된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내용은 다양하지만 하나의 패턴을 지니고 있다. 다름 아니라 오늘날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근대화 이론에 근거해 국가 전체의 성장이 결국에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처음부터 국가 발전전략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 해소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간주하는 발전전략이다. 또한물질적 경제적 번영과 가파른 도시화가 가져온 인간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을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는 발전전략이다. 결국 사회적경제는 단번도약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관심은 다음의 질문으로 요약된다. 사회적경제라는 단번도약의 목적지로 달려가는데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물론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고소득국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고소득국가는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마음껏 펼치게 하는 시장 구조에 근거한 자본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회 경제 체제를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가야할길이 저소득국가의 거리보다 훨씬 멀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주의적 삶이모습이 이미 체화된 상태에서 공동체의 가치와의 균형을 위한 내부 동력을 발전시키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어쩌면 외부 충격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저소득 국가는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다.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자유방 임적 시장제도는 이를 수정 보완해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방향을 틀기에 보다 유 연하고 저항이 적을 수 있다. 또한 아직 상당히 존재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존하 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저항과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물론 이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국가이건 저소득국가이건 사회적경제가 그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 실제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모두에서 공평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각자에 대한 배려와 품위에 대한 공감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의식이라고 불리는 조건들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저소득국가에는 종종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단번도약의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갖추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제 단번도약이라는 국가 사회의 일반 발전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한 반도를 바라보자. 생각해 보면 이 같은 단번도약의 담론을 정립하고 실현해 내는데 한반도보다 더 적절한 곳은 없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OECD 회원국으로 북한은 국민소득 1천 달러의 세계에서 가장 극빈한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단번도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의 성장 전략이 유효기간을 다한 후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지 못하며 지난 40여 년 간 뜨거웠던 성장의 엔진이 식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득권(legacy)에 갇혀서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언젠가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발전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또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고착화된 사회적 계층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단번도약 전략이 필요하고 또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대한민국에서 단번도약을 통해 도달하고자하는 목적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래 지난 74년간의 폐쇄 고립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 동안의 '불량국가'이미지를 벗어나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단번도약', '새세기 혁명'을 강조하며 이미 지난 산업사회의 모델 대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발전(leap-frogging)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자신들의 뒤처짐(starting from scratch)을 오히려 단번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풍

부한 개발경험을 흡수하여 그들이 원하는 사회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단번도약을 북한 지도부에서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날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대전환의 시기답게 한반도의 정세와 상황은 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는 역설적으로 개발담론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단번도약 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한반도가, 대한민국과 북한이, 단번도약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구체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면 대전환기를 맞은 국제사회에도 커다란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길은 분명 험난할 것이다. 우선 국내외를 통틀어 사회발전 전략으로서의 단번도약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단번도약적발전이 근대화 이론에 근거한 경제위주의 성장담론과 지속가능성장 담론을 완전히 대체하는 담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두 발전담론의 장점들과 교훈들을 밑거름으로 하고 이두 담론이 가진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단번도약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발전의 과정과 발전의 방향성 모두에서 그렇다. 따라서 단번도약 발전담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 발전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덧붙여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 혁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문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단번도약적 발전이 마주할 또 다른 도전이 있다. 기술적 측면의 단번도약과 사회 환경적 측면의 단번도약은 궁극적으로 도달할 사회상이 상충될 가능성이다. 즉 목적과 수단이 충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하면 명확해 진다. 4차 산업 혁명으로 가능해진 모든 기술적 진보가 단번도약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기술이 인간소외를 가져오고 일자리 감소를 통한 잉여인간을 양산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단번도약적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한반도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도전도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숙제인 분단이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이념 간의 첨예한 갈등이다. 남과 북이라는 분단의 과정은 각 체제의 정당성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체제와 이념에 조금이라고 가까이 접근하는 논의 자체를 봉쇄해 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적 담론이 거의 금기시되어 왔고 북한에서의 상황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한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단번도약이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 현 상황에서 남북 양측에 정착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단번도약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분단이라는 장애물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반도는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단번도약의 가능성이 크다. 1953년 폐허가 된한반도에 서서 아무도 대한민국이 그 후 40년이 채 안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반도는 역사를 이루어 냈고 2019년 또 다른 대전환기를 맞은 한반도는 단번도약의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한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어떤 조건은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고 또 어떤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주어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한 도전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는 세상에 단번도약을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단번도약은 한반도만을 위한 꿈이 아니다. 자국의 야망과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몽이 아니다. 한반도의 단번도약은 그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날 혼돈의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전 세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단번도약의 길을 제시하는 과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과 같이 대한민국과 국제 전문가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댐으로 새로운 발전담론의 틀거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회가 되면 북한과도 단번도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단번도약, 사회적경제, 한반도. 이 세 단어가 한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현실이 되면 한반 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생존과 품격의 문제를 풀어내는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운드테이블]

토론문

라파엘 베탕쿠르 쿠바 하바나대학교 교수

1. 단번도약 개발전략이란?

'단번도약은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개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제안서를 통해 그 전략을 처음 접했으며, 현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정보는 저 한 사람의 무지를 넘어, 북한에 관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쿠바에 관해 침묵을 일관했던 서구 언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분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정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들이 차단되어 왔던 것입니다.

2. 제재 해제 20년 뒤, 가장 이상적인 북한의 모습은?

모든 경제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대중 부문이 한데 혼합되어 있습니다. 역사, 문화, 발전 잠재성 등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양극단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민간 및 대중부문을 억누르는 정부중심 경제는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발전을 억압하는 엘리트층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민간 기업경제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장악되며, 금권정치에 의해지배되고, 역시나 소규모 사업체와 대중 부문을 옥죄기 때문이죠. 북한은 자신의 이상적인모습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이며, 그리고 번창하는 사회주의의 건설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3. 단번도약 개발전략의 기술혁신 분야는 사회발전과 어떻게 만나는가?

도약하기 전략은 1차 산업으로부터 쇠퇴일로를 걷는 2차와 3차 산업으로 이동하는 전통적인 발달 코스를 피하는 것으로, 분명히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전략에 따른 난관과 위협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예상되는 난관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과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합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독점적인 경향을 굉장히 많이 띠기 때문입니다(그 가치사슬에서 자리를 잘 잡은 남한과 제휴하는 것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풀뿌리 경제를 건설할 수있게 해 줄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이 결여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위협요인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대중의 참여 없이 계획되고 실행된 전략의 사용은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위기에 봉착할 테니까요.

4. 왜 경제개방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가?

경제개방 즉 '경제 자유화'는 일반적으로 민영화, 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를 통해 시장경제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부 역할 축소, 접근 가능한 사회 서비스의 사회 안전망 제거, 그리고 소득과 부의 집중화는 일반 대중의 가정경제 약화 및 비공식 부문의 성장을 초래하 게 됩니다. 사회적, 연대적 경제 접근 방법을 통해 이러한 약점을 인지하고 자본주의 경제 가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소득격차 및 불평등 확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개발과정의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 사회부문: 노인복지, 청년 실업 해소, 미혼모 지원,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실시
- 경제부문: 협동조합, 가족기업체, 먹거리 안전, 현지 자원 및 기술을 이용한 주택건설, 도서 지역 개발, 소규모 관광업, 대학의 지역 발전 동참 등을 지원
- 환경부문: 재활용/재활용, 재생 에너지, 숲 복원, 생물 다양성, 환경 교육 추진
- 문화부문: 지역 문화 및 전통 활성화, 대중의 소통 및 참여 촉진

[라운드테이블]

토론문

소냐 노브코빅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교수

1. 단번도약 개발전략이란?

개발전략으로서의 단번도약

"최근의 기술 발전, 특히 ICT(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 같은 분야의 기술 발전의 특징을 보면, 격차를 만회하는데 선두주자가 걸어간 길을 뒤따라가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는 오히려 기술적 "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즉, 여러 나라들이 발전 단계에서 지나왔던 기술의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다" (2018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p84).

기술 도약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 영국으로부터 진보된 기술을 받아들여 영국의 생산력을 뛰어넘어버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유럽과 미국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처음에는 일본이, 그리고 곧바로 한국과 대만이 1980년대에 마이크로 칩 기술로 도약했으며, 싱가폴과 홍콩을 빠르게 성장시켰던 금융 서비스 및 기타 진보가 그 뒤를 이었다.

오늘날, 휴대전화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에 크게 힘입은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을 이러한 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연구자들은, 기술적 발전을 단순히 수입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생적 혁신으로 이끌어가려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약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퍼킨스(Perkins, 2003년)는 성공에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며, 기술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려면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Sauter and Watson(2008년)은 4개국의 환경적 도약 기회와 사례를 검토하고, 성공의 요인 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또한 연구 대상이었던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포괄적 일반화는 가능하지 않다.

"이는, 개발 또는 격차 만회에 있어 표준 모델은 없다고 결론 내렸던,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나라들에 대한 이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보다는 각국의 특유의 자원을 고려해야 하며, 시행착오의 교훈을 도약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Sauter and Watson, 2008년)

기술은 해당 국가의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발전 및 흡수 능력의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기술 도약에 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것은, 급변하는 기술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충

분한 에너지 공급과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혁신이다. (UNCTAD, 2018년) 또한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망의 채택 기회는,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기술적 변화가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에너지 시스템의 도약은 "녹색 경제" 촉진과 기후변화 경감에 대한 기여, 그리고 경제발전으로 가는 성공의 길일 수도 있다." (UNCTAD, 2018년)

신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도약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위기가 중첩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불러온 여러 외부 효과 및 구조적 불균형을 만들어 내, 기로에 서있다. 엄청난 소득 불평등, 권력 구조의 이동, 세계적 거버넌스의 위기 등은 기후 변화와 재정 위기를 동반하고 있다. 야심적이고 변혁적인 UN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일부 반영된 것과 같이, 세계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 탈성장(De-growth, 脫成長)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포스트자본주의(Postcapitalism)에서 공익(公益) 경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포함해, 사회연대경제(SSE)는점점 더 주목을 받고 힘을 얻고 있으며, 새로이 떠오르는 다른 아이디어들과도 결합해 나가고 있다 (노브코빅, Novkovic 2018년).

쿠바나 북한 같이 자본주의로부터 격리되었던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도약하는 기회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1990년대 쿠바는 (설계했다기보다는 재난에 의한 것이었지만) 탈(脫) 화석연료 경제의 세계적인 선전 포스터 같은 사례였으며,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비전에 집중했다. 쿠바는 시민들을 동원하고,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고, 교통수단을 바꾸고, 대규모의 교육 및 재교육에 착수했다. 나의 쿠바 동료들이 쿠바 사례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므로, 분석은 그들에게 맡긴다.

그러나, 2019년의 상황은 그러한 발전에 훨씬 더 우호적이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오픈소스 기술에 관여하고, 생각을 나누고, 사회적 재앙과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국가경제의 경로를 바꿀 것을 결심했다.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는 도넛 경제학(옥스팜, Oxfam 2012)에서 두 가지의 시스템적 제한을 잘 포착해내고 있다.

한 편으로 세계 경제는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를 제공해야 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이는 행성경계층(planetary boundaries)의 경계 내로 제한된다. 경제의 운영은 녹색 원 안(아래 그림 참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목표('도넛'의 중앙)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해서는 안 되며, 생태계 천장의 바깥으로 넘어가서도 안 된다. 이 그림은 이러한 행성경계층의 일

부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의 능력을 재건하고 사회-경제적/ 정치적 삶에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와 정책의 전 측면에서의 조치들은 재생적이고 분산적인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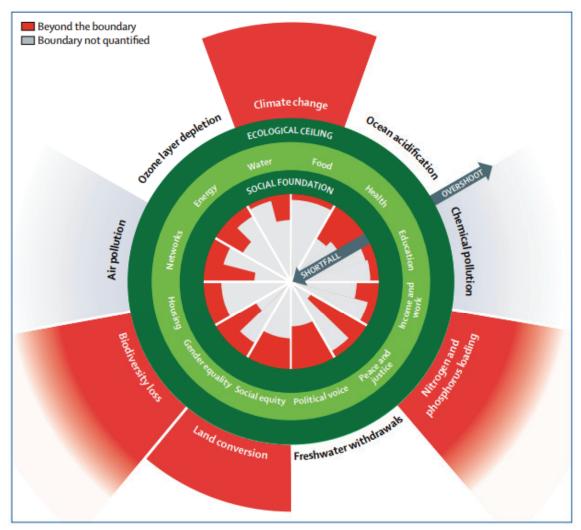


Figure: Shortfalls and overshoot in the Doughnut

Dark green circles show the social foundation and ecological ceiling, encompassing a safe and just space for humanity. Red wedges show shortfalls in the social foundation or overshoot of the ecological ceiling. The extent of pressure on planetary boundaries that are not currently being overshot is not shown here (see appendix for all graphics).

그림: 도넛 속의 '부족' 및 '초과'

진한 녹색 원은 인류에게 안전하고 딱 맞는 공간을 내포하는, 사회적 기반과 생태계 천장을 보여준다. 빨간 색의 쐐기 모양은 사회적 기반의 '부족함'이나 생태계 천장을 뚫고 넘어간 '초과' 상태를 나타낸다. 현재 초과되지 않은 행성경계층에 대한 압력 범위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다.

출처: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2018)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plh/article/PIIS2542-5196(17)30028-1/fulltext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추출, 생산, 소비, 폐기로 이루어지는 20세기의 선형적 경제 패러다임이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겪게 되는 젊은 세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소비지상주의를 위축시키는 것은 박탈감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들의 소비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 순환 설계는, 신기술이 그러는 것처럼, 모든 경제에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제도가 자본주의 주도 경제에 매몰되지 않은 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약하는 것이 좀 더 쉽다.

(순환경제 참조,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circular-economy/concept).

2. 제재 해제 20년 뒤, 가장 이상적인 북한의 모습은?

이 특별한 질문에 대해 나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비전과 리더십에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이 질문은 북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기술뿐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다음 시스템으로 도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를 개발하기로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올바른 유형의 여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기술, 자산의 통제와 소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적 소유권과 상명하달식 지배구조와 양립되지 않는다 (리프킨, Riffkin 2012). 우리는 상명하달식 제도가 아니라, SSE(사회연대경제)와 협동조합 경제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자산의 집단적 소유 및 투기 시장으로부터의 보호, 자본 시장 억제, 대체 자금원의 준비, 공유재 강화 및 경제 민주화, 올바른 유형의경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보상체계, 민간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공동의 비전/가치를 지키게 하는 등의) 경제주체의 참여 조건 설정, 및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된다. 영감을주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의 사례는 이탈리아, 캐나다(퀘벡), 스페인, 영국, 브라질, 인도, 기타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 부문도 영감을 줄 수 있다 –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협동조합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례다.

또한, 무엇이 잘 작동하고, 활발하게 유지되며, 관여가 잘 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북한 내의 현재 SE(사회적경제)에 대해 철저하게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기존의 협동조합을 한국/광역/글로벌 협동조합 운동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3. 단번도약 개발전략의 기술혁신 분야는 사회발전과 어떻게 만나는가?

기술은 외부와 단절되어 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 진보는 공익(公益)에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사익(私益)에 사용될 수도 있다. 신기술의 사회적 임팩트는 규제환경,

기술의 목적, 소유구조 등에 좌우된다. 그 임팩트는 부정적일 수 있다 - 플랫폼 자본주의는 여러 도시를 파괴했고, 사회보장을 저해했으며, 노동자를 착취했고, 불평등을 심화했고, 산업과 경제를 불안정하게 했다. 그러나 신기술의 사회적 임팩트는 또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고, 교육을 촉진했다. 협동조합과 SSE(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는 부정적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윤리적인 복수의 협동조합 은행들과 '윤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은행들의 국제연합(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은 공동 플랫폼과 도구, 및 구조 등을 개발하여 자본이 사람들과 지구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도록 했다. 이들은 실물경제와 지역사회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금융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모에다(Moeda)와 같은 협동조합들은 전 세계의 협동조합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암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들은 노동자가 기술뿐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도 통제권과 소유권을 가지도록 해준다. 페어BnB(Fair BnB)는 여러 지방정부들과 협력하여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관광 숙박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한 지역 주민 이탈을 막고 있다.

4. 왜 경제개방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본 소유자의 부를 늘려주는 것 대신,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구를 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들은 시장 경제에서 민간 기업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는 소규모이며, 수익이 적고 긴축 예산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퇴조를 보일 때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정부나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이 불균형을 만들어낼 때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부분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경제에 대한 좀 더 대담한 비전은 이와 다른 관점을 주기도 한다. 경제는,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주도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유 구조도 포함될 수있다. 젊은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비-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s)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같이 하는 다른 유형의 기업들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공통된 맥락은 경제민주주의1), 즉 노동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투자자 소유 기업에 우호적인 일반적 주장은 이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할 것이며, 더 많은 혁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는 그러겠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획기적인 기술 대부분은 공공 부문에서, 정부의 자금과 학계의 참여로 발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추카토, Mazzucato 2013, 2018). 마추카토는 국가가 혁신 기반 투자에서 주된 위

¹⁾ 구 유고슬라비아는 경제적 조직화의 주된 형태가 그러한 기업들 위에 세워졌다.

험 감수자로서 기업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 자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기업은 경제의 금융화에 기여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R&D에 투자 하는 것보다는 주식 가치에 관심이 더 많은 경우가 흔하다. 단기 수익 증대를 위해 해고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기업들 사이에는 자사주매입이 만연하고 있다(라조닉, Lazonick 2014). 지난 10년 간 파괴적인 기술들이 여럿 등장했고, 시장은 '플랫폼 자본주의'로 진화했다(스르 니첵, Srnicek 2016). 컴퓨팅 플랫폼 및 그러한 플랫폼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소유권은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고, 플랫폼 소유자의 정보 통제로 인해 노동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착취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또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 협동조 합주의(숄츠, Scholtz 2014)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임팩트에 대항하는 움직임이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소유 및 통제되는 플랫폼들은, 예를 들자면, 택시 산업, 부 동산 임대업, 암호화폐를 통한 개발 투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비윤리적 투자로 인해 야기된 부당함에 대한 대응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는 투명성을 가져오고, 다른 시장 행위자들에게 본을 보인다. 대부분의 현대 시장경제 국가들에서 사회적 경제가 융성하고 있다. 분산 컴퓨팅과 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로 인해, 기업의 상명하달식 지배구조는 독점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윤리적 가치와 함께, 경제민주주의는 지식 공유와 비독점 라이센싱의 오픈소스 철학 위에서 자라난, 컴퓨터 사용 에 능한 새로운 세대의 도움을 받아 차세대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윤리적 가치들을 공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촉진한다. 다음 세대가 새로운 가치 기반 모델을 구하고 있음을 이해한, 가장 성공적인 자본주의 기업들이 이러한 속성을 따라 하고 있다.

5.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개발과정의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특정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직한다. 그러므로 경제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룰 수 있다.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서로 연대하여 시장을 창출하거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적경제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이것은 북한에 무엇이 있고, 북한의 사회와 경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첫 걸음이다. 남한의 사회적경제는 그 자체의 역사적 발전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지난 이십 년 간 SE(사회적경제)의 목적은 변화해 왔다. 만일북한이 자본주의 모델을 노골적으로 채택한다면, 남한과 북한에서 SE(사회적경제)가 수행할역할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북한이 어떤 형태의 경제를 구상하느냐다. 사회적경제는 적절한 법적/ 자본적 구조를 갖춘, 생산 조직의 지배적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공공재(주로 천연 자원)의 사유화 금지가 포함될 것이며, (식량과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노동의 제도 적 보호가 보장될 것이다. 국가는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데 있어, 그리고 혁신투자의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어, 파트너가 되어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사회는 국가가 취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그 과정에 대해 알려주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약 과정에서 자본 투자자들이 관여하고 불평등과 노동계급의 소외, 그리고 기초 생필품의 상품화가 일어난다면, 지난 수십 년 간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 국가들에서 그랬 던 것처럼 북한의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경향성에 대한 대칭점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즉각적 역할은 북한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공정한 조건으로 자본 투자를 제공하고, 공동 소유권을 가지는 플랫폼 제공으로부터 연구, 교육 훈련, 사회복지사업 부문 공동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공동 SE(사회적경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일일 것이다. 양국이 당장에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규정하겠지만, 북한의 시장 개방 정책은 그러한 발전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조문헌]

윌리엄 라조닉 Lazonick, William (2014) 번영 없는 수익: 자사주매입이 시장을 조작하고 대부분의 미국인을 열악한 상태에 내버려두고 있다, HBR(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9월.

마리아나 마추카토Mazzucato, Mariana (2013) 기업가형 국가: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신화 파헤치기, 앤덤 출판 (Anthem Press).

소냐 노브코빅 Novkovic, Sonja (2018) 협동조합의 임팩트: 변혁, 또는 그저 비즈니스? 협동조합 비즈니스 저널, 가을판, 9월, NCBA 워싱턴 DC.

리차드 퍼킨스 Perkins, Richard (2003) 개발도상국의 환경적 도약: 비판적 평가와 재현, 자연자원포럼 27: 177-188

케이트 레이워스Raworth, Kate (2017)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plh/article/PIIS2542-5196(17)30028-1/fulltext

트레버 숄츠 Scholz, Trebor (2016)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기업형 공유경제에 대한 도전, 로사 룩셈부르크 스티프퉁, http://www.rosalux-nyc.org/platform-cooperativism-2/

닉 스르니첵 Srnicek, Nick (2016), 플랫폼 자본주의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 (2018) 기술 및 혁신 보고서 2018: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첨단 기술 이용하기, https://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tir2018_en.pdf

세계은행 World Bank (2017)

https://www.worldbank.org/en/news/opinion/2017/10/11/africa-can-enjoy-leapfrog-development

[라운드테이블]

토론문

저우 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1. 단번도약 개발전략이란?

한번에 도약한다는 사상으로 비교적 급진적이다. 점진적인 개혁과 발전이 있어야만 양적변화를 질적변화로 이끄는 도약을 이룰 수 있다.

2. 제재 해제 20년 뒤, 가장 이상적인 북한의 모습은?

해외와 중국의 경험을 볼 때, 지역 간, 인구집단 간의 연계계획이 필요하며 쌍방이 감당할수 있는 연계 메커니즘을 세우고 2,30년 간 노력을 기울여야 지역 균형과 빈곤 탈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3. 단번도약 개발전략의 기술혁신 분야는 사회발전과 어떻게 만나는가?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기술혁신은 도입이나 원조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장기간의 교육과 산업발전, 기술혁신에 대한 독려가 있어야만 진정한 기술의 수 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4. 왜 경제개방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가?

사회적경제를 움직이는 두 손이 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고, 정부는 볼 수 있는 손이다. 이 두 손이 사회라는 몸에서 자라야 세 개의 손이 함께하는 무대가 형성된다.

5.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개발과정의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싱크탱크로서 사회적경제 층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제도적인 방안) 집행자로서 사회 참여를 이끌고 자치운영의 프로젝트도 포함되며, 특정 프로젝트의 발전을 추진한다.

[라운드테이블]

토론문

왜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가?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선임연구원

□ 사회적경제란?

- 아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
 -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 사 등이 있음
- ㅇ 북한에도 사회적 경제와 유사한 협동조합(수산협동, 생산협동, 편의협동조합) 존재
- □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
 - ㅇ 사회 양극화 발생
 - 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북한의 전통적인 계획경제시스템과 그로 인한 국가공급 제의 붕괴, 합법적인 사경제활동에 의해 권력층과 일반인, 사무원과 노동자, 노동자 와 농민 등에서 양극화가 이미 발생
 -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되면, 지식수준, 기술수준, 사업자금보유정도 등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많은 급여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개인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반대에 처하게 될 것임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사라지고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수준이 천차만별
 - 또 어떤 사람은 외국기업에서 또 어떤 사람은 생산능력이 낮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사회현상으로 등장
 - 소득수준의 차이, 구매력 수준의 차이, 소비품가격 인상 그리고 복지제도의 변화 등으로 소비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o 실업자 발생

- 북한은 지금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실

업을 방지

- 대학졸업생, 고등학교졸업생, 제대군인 등 모든 근로 능력자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배치하나, 개혁개방과정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의해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
- 특히 기술기능 수준이 낮거나 단순노동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주로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거부감이 낮기 때문에 개혁 개방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용력이 높을 것으로 봄
 - 공업, 농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구성할 필요

서울 시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주제별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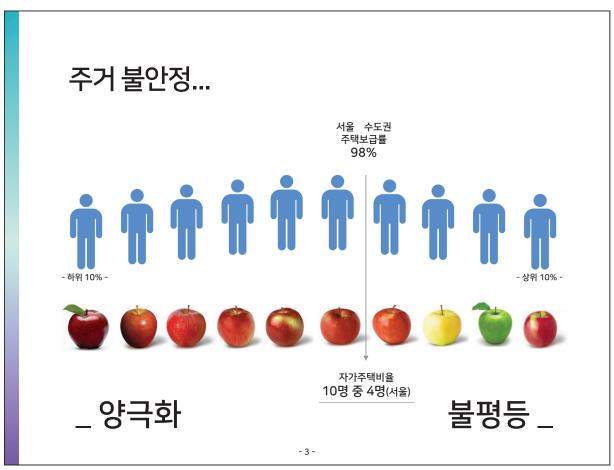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위스테이 모델을 통해 본 사회적경제 방식의 부동산 개발



공간과 사람을 <mark>잇는</mark>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







집이란 <mark>사는 것</mark>(buying)이 아니라 <mark>사는 곳</mark>(living) 입니다



위스테이에 살거나...

사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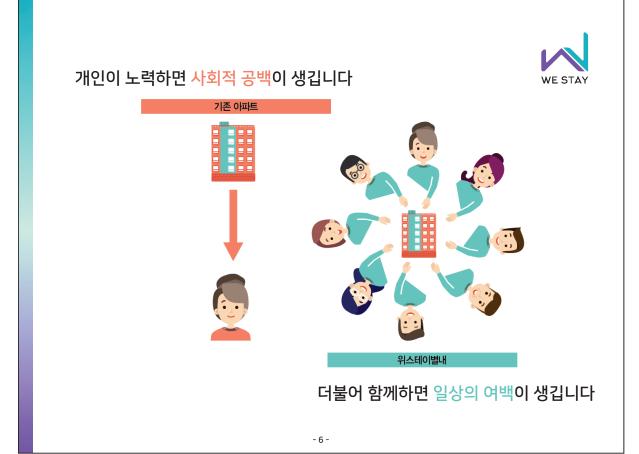




빌리거나..



- 5 -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공 또는 사회적임대인(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소유, 운영관리 Affordable Housing: 적정가격과 일정한 주거수준 확보 공동의 유대를 가진 자들이 함께 거주하며 커뮤니티 공간/프로그램 운영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사회문제를 공익적/비영리적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나 방법으로 해결하는 활동 사회를 '사회적인 방식'으로 혁신하는 것

사회혁신으로 만드는 대안적 주택 '위스테이'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 공유 비즈니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







		A stand	
위치	경기도남양주시별내지구A1-5BL	위치	경기도고양시지축지구B-7지구
규모	고 아파트 491세대(토지면적 30,631㎡, 연면적 72,562㎡)		아파트 539세대(토지면적 32,650㎡, 연면적 84,062㎡)
시설	커뮤니티시설 730평 (어린이집,놀이터,도서관,공유부엌,커뮤니티센터등)	시설	커뮤니티시설 1110평 (어린이집,놀이터,도서관,공유부엌,커뮤니티센터등)
평형	24평형(86세대), 29평형(252세대), 34평형(153세대)	평형	29평형(246세대), 34평형(293세대)
일정	2018상반기착공/2020하반기입주(예정)	일정	2019 싱반기착공(예정) / 2021 하반기입주(예정)
입지	4호선북별내역도보3분(명동역35분거리), 별내C5분거리/불암산,수락산,덕송천등자연환경	입지	3호선지축역도보 15분(3호선경복궁역 19분), 삼송지구/강변북로차량 5~10분
컨소시엄	더함,계룡건설,대한토지신탁,협동조합 - 8 -	컨소시엄	더함,㈜동양,대한토지신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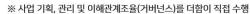
사회적경제주체 주도의 부동산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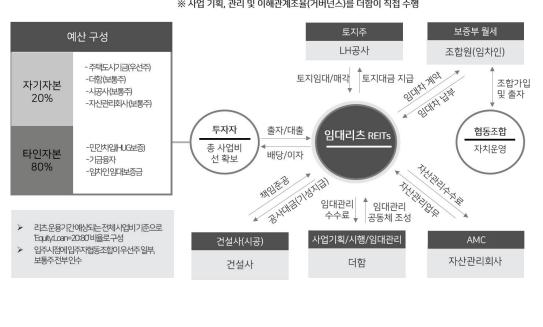


▋ WE STAY는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사회적경제 방식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

- 9 -

위스테이 사업구조





- 10 -

여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다른 점



신뢰할 수 있는 소셜 디벨로퍼

소셜 디벨로퍼가 주축이 되어, 건축비 거품 최소화, 개발 비용 절감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실현합니다



안정적인 어포더블 하우징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소한 8년 동안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생깁니다



단순 입주자 아닌, 적극적 공급운영자

위스테이 협동조합을 통해 주택을 공동체적으로 소유해, 주택 공급과 운영의 주체가 됩니다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

위스테이에서는 취미를 나누고,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이웃과 친구가 생깁니다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 및 서비스

위스테이의 커뮤니티 시설은 법정기준대비 2~3배로 넓어 사람과 공간의 연결을 실현합니다

- 11 -

WE STAY방식 개발 효과(위스테이 별내 사업 기준)

■ 사업비 절감 →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 임대조건 실현



토지매입가 약 100억 이상 ↓ (조성원가로 토지매입가 합의 도출)



건설도급단가 86억~108억 ↓ (건설사의 관행적 도급단가 보다 평당 40만~50만원 절감)

■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 경향 통제 및 적정 자본이익의 공동체 귀속 *출처: 2017년 국정감사 황희 의원실 보도자료

시행사	내부수익률	순수익(리츠 청산시)
대우건설	10.27%	434억
대림산업	14%	528억
롯데건설	7.5%	249억
현대건설	12.6%	490억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대우건설 10.27% 대립산업 14% 롯데건설 7.5%

<LH공모형 수도권 뉴스테이 시행사 내부수익률 및 청산시 순수익(자본금 원금 제외) >



- 사업 안정성을 고려한 적정 내부수익률 산정
- 배당이익을 협동조합이 실현(자본이익 공동체 귀속)

- 12

일반 뉴스테이 vs. 위스테이 비교

항목	뉴스테이	위스테이
사업주관사	건설사	사회적기업
임대료	시세의 95% 내외	시세의 80% 내외
연간 임대료 상승률	약 5% 내외	약 2.5% 내외
입주자 참여	없음	참여형 설계 (커뮤니티시설) 입주전 관계 형성 정관 및 규약 만들기 운영방안 검토
입주 후 리츠 지분	건설사	사회적협동조합 (입주자 전원 조합원)
8년 후 분양가 결정	건설사 수익 중심	사회적협동조합 인수 가능성 확보
8년 후 분양 시세차익	건설사 수취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수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수취 (법상 조합원 개인배당 불가)

- 13 -

공동체•사회적안전망에 대한 열망

"이런 아파트를 기다려 왔는데 입주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 별내 조합원/임차인 모집 추가 당첨자 A씨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예전처럼 살 수 있게 됐다."

- 직계 가족, 친척 등 3 세대가 지원해 모두 당첨된 B씨 및 가족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가치지향적으로 살고 싶었다."

- 무주택자만 지원가능 했기 때문에 가진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지원해 당첨되신 C씨

전체 경쟁률

6.4:1

최대 경쟁률

55:1



모델하우스가 아닌 커뮤니티하우스 <mark>마실</mark>

- 입주 전 커뮤니티 형성 및 활동의 장서울 중구 명동 1가 1-1



커뮤니티하우스 마실(모델하우스)

마실을 활용한 다양한 조합 및 커뮤니티 활동

네트워킹 파티 형식의 지축 쿱파티



각종 동아리 모임



참여형 공간 디자인 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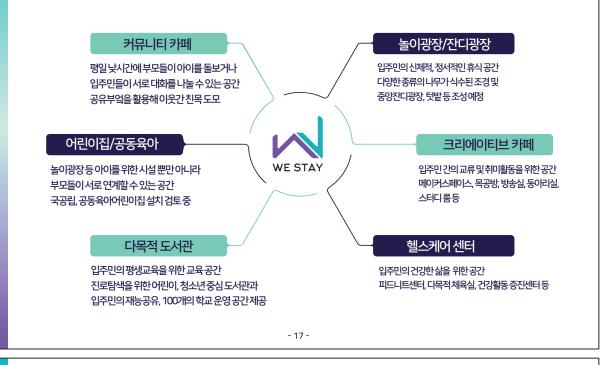


조합원 기초/심화교육 진행

- 16 -

위스테이 커뮤니티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시설을 입주민들과 함께 '참여형 설계' 방식으로 구축



위스테이 커뮤니티케어 & 일자리

■ 공동체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생계획"총 23개 분야 정규직 50명 파트타임 80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급자족 공동체마을 실현"



- 18 -

참여형 설계 워크숍

기존의 아파트 단지와는 다르게, <u>입주 전부터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u>를 시행사, 조합원, 공간 퍼실리테이터, 설계사무소가 함께 모여 계획을 세우는 워크숍

▮ 참여형 설계 워크숍 주체 별 역할



사회혁신기업 더함 참여사업 전반 기획 및 지원 /모니터링



사회적협동조합 공간 디자인 및 운영 방안 아이디어 제안



공간/운영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기획 및 진행 공간 디자인 /운영계획 작성



설계사무소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발자취

발기인모임

창립총회

조합원 교육

커뮤니티활동



- 19 -

17-04-27 발기인대회

17-05-13 창립총회

17-06-08 네이버 카페 오픈

17-07-14 공동육아소모임 번개

17-07-25 리더조합원교육

17-08-25 사회적협동조합 국토교통부 인가 17-10-28 임시총회

17-09-01 사무국장 상근 시작

17-09-13 공동체갈등전환포럼

17-09-15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

17-09-16 남양주마을축제

17-09-28 따복뉴스레터 위별협 소개 게재 17-12-06 공동체위+비즈니스위 사업 평가회

17-10-16 남양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7-11-03 남양주 사람책행사

17-11-11 주간 카페활성화상 시행

17-11-12 공동육아소모임

17-12-04 교육위+약속위 사업 평가회

18-1월~2월 회복적 아파트를 위한 갈등조정

마을활동가 양성과정(30명 / 60시간 이수)

18-03-17 착공기념식 & 정기총회

18-03-30 별내 현장 착공

- 20 -

회복적아파트(Restorative Apartment)

회복적 정의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통상의 응보적 정의와 다르게 피해자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그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둠

회복적 아파트란

회복적 아파트란 공동체(아파트)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질 '갈등과 반목'을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해결하는 공동체적 갈등조정 프로그램

: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주관으로 워크숍 형태의 학습, 갈등조정 리더 양성, 마을갈등조정센터(예정)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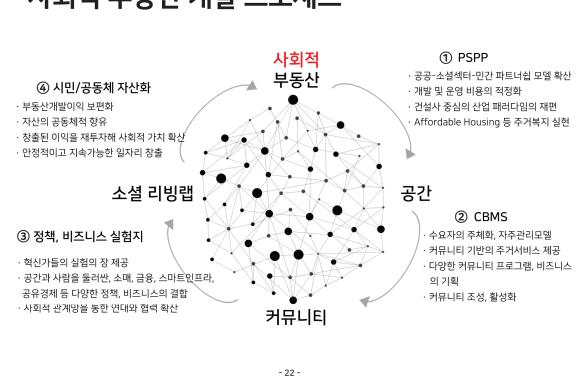






- 21 -

사회적 부동산 개발 프로세스



더불어 함께 풀 수 있습니다

수요자플랫폼

- "지역 네트워크 활용, 사회주택 수요자 플랫폼(ex, 사회주택 청약제도)을 운용"
- -수요자 플랫폼을 기반한 사회주택 개발
- -사회적금융과결합한주거상품제공

■ 유휴공간의개발

"지역이 보유한 유휴 공간 혹은 개발 가능한 공간을 사회적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개발"

- -타운매니지먼트형도시재생
- -유휴공간도시재생



▮ 공동선을 위한 소셜 공간 개발

"지역이 보유한 유휴 공간 혹은 개발 가능한 공간을 사회적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개발"

- -소셜빌딩 공동개발/운영
- -문화공간시민자산화개발

- 23 -

사회적경제 방식의 부동산 개발 원칙들

- 수요자 중심의 자산화
- 수요자 중심의 개발
- 수요자 커뮤니티 중심의 자산의 운영 / 의사결정
- 이윤보다 사회적/환경적 목표 우선
- 사유화보다는 공유경제

북한의 현황

'웃돈거래'에 분양 경쟁 치열···이미 돈맛 본 北 부동산시장



[중앙일보] 입력 2018.07.18 00:20 수정 2018.07.18 13:29 | <mark>종합 24면</mark> 지면보기**,**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자본주의 맛 본 북한 부동산시장 ... 업계는 대북진출 채비

평양엔 수 십만 달러 아파트 등장 웃돈거래에 중개수수료까지 오가

"주택은 사적 거래 가능한 재화" 입사증 거래 등 개인 재산 인식

400만 세대 절반은 다시 지어야 중국산 자재 편중 현상도 심각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힘입어 북한과의 경협과 교류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들어 대북접촉 신청이 500건을 넘어섰다는 게 통일부의 발표다. 그야말로 봇물이 터진 듯한 형국이다. 대북 부동산 투자 열기도 일렁거린다. 평양 대동강변의 아파트 시세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경기도 파주시 등 접경 지역 땅값이 들썩인다.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대북진출로 타개해 보려던 건설·건축 업계는 채비가 한창이다. 이미 돈맛을 들인 북한 부동산 시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남북 협력과 대북진출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 25 -

사회적 경제 중심의 북한 개발 제안

지속가능성

- 수요자 중심의 자산화
- 수요자 중심의 자주적 운영과 의사결정
- 양극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점으로 개발

혁신성

- 사회혁신과 기술혁신의 결합
- 소셜스마트시티의 도입

포용성

- 협동조합 방식의 개발로 접근

- 26 -









공간과 사람을 <mark>잇는</mark>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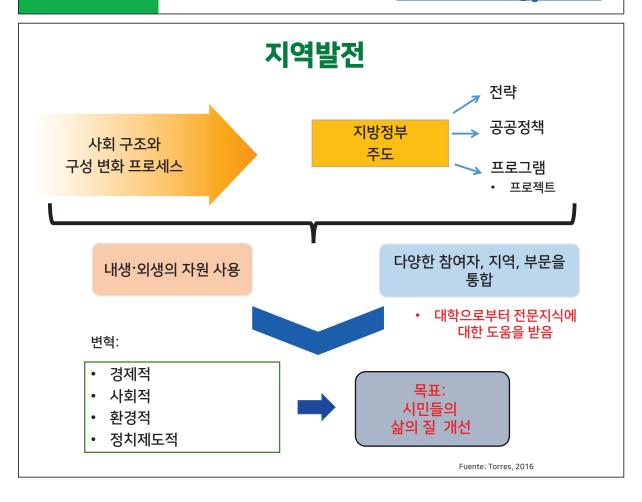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2019년 7월



쿠바의 지역발전

Rafael Betancourt 교수 Red ESORSE -사회연대경제 쿠바네트워크 rbetancourt3114@gmail.com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의 개념



- 2019년 헌법, 168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조직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정치행정단위를 구성한다…자치단체는 국민을 권력을 대신하는 시의회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배정한 수입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경제·사회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6-2021.

No. 17. 기초 단위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권과 지속가능성, 견고한 경제적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에 따라 지역발전을 촉진해 지역간 불균형을 줄이고 각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사회구성과정



여러 학문과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

관계 주체들의 통합: 공공부문, 민간부문, 협동조합



지역발전전략 착수

유연적 적용



시민참여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개발

내부적/외부적 CI 테크놀로지 남녀의식

구조변화과정



발전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로컬푸드, 수입과 수출, 수입대체, 재생에너지,



유통망 개발

관광업부문 잠재적 재원 동원



결과기반 경영문화

매트릭스, 지표



여성과 청년층의 참여

중소기업 보호육성

변화가 가장 시급한 부문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고, 생산성을 증가



커뮤니케이션 정보과학 e-정부

시민참여 유도



주거 도시화 사회기반시설

지역 건설자재



사회문화 서비스

중앙정부의 부담경감

해결해야 할 과제

지자체 관계자들의 역량부족

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

프로그램이 아닌 고립된 프로젝트

사전 니즈 평가를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에 따름

예산으로는 자금이 불충분

세금, 수입, 국제적 협력과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중앙에 의한 정책결정

팀워크, 집단적 결정, 국민의 요구, 투명성, 공공참여

환경문제

모든 프로젝트에 환경 관련 인증 요구 ; 지속가능한 지표구축







잠재적 지역기업가 트레이닝 트레이닝타입- Activities



워크숍 / 세미나

투어 기획자와 가이드 시의 규정과 규제 창의경제 협동조합 노동자권리

현업

___ 소규모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프로젝트 어려운 이웃

상담 및 컨설팅

법 관련 사업, 금융 절차

자금조달

보조금 차입











거버넌스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참여적인 프로세스 실행 신뢰 분위기 조성

> 문화적차원 발전동력으로서 문화활동 촉진

사회적차원 사람, 공평, 포용의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적차원 자연 그대로의 역사가 담긴 환경의 보존, 자연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

경제적차원 다양하고, 지속가능하고, 다채로운 지역경제 지원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발전 목표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현지화

OBJETIV S DE DESARROLLO
SOSTENIBLE





































<목 차>

- 1. 들어가기
- 2. 해방 후 북의 토지개혁 연혁
- 3. 1980년대, 외자 유치를 위한 토지제도 변화
- 4. 산업별 부동산 제도 주요 변화
- 5. 부동산 시장 현황
- 6. 북한 부동산제도 평가와 전망
- 7. 사회적경제 지원전략

1. 들어가기

- T'R
- □ 토지독점 문제, 오늘날의 남북 분단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 공공토지임대제, 토지기반 자립경제의 핵심 기초
 - 로스차일드, "나에게 화폐발행권만 허용하면 정부가 무슨 법을 만들든지 개의치 않겠다."
 - "토지만 공정하게 소유 및 이용하여 토지가치 환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가 무슨 법을 만들든지 개의치 않겠다."
- □ 본 발표의 목적
 - 북한의 토지 등 부동산제도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을 살피는 것.
 -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과 사회적경제라는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경제적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지 모색

2. 해방 후 북의 토지개혁 연혁

11

- □ 북한이 추진한 토지개혁 과정, 중국과 유사
 - ① 일정 규모(5정보) 이상의 개인소유 토지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
 - ②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토지사유권 인정
 - ③ 농업집단화 사업을 통한 국가토지소유제 확립(1958년)
- □ 중국 토지개혁과의 유사점
 - 토지 사유권을 착취적인 소유권으로 간주해 소멸
 - 소유권의 이중 시스템
 - 북한 : 국가소유권 + 협동단체소유권
 - 중국 : 전민소유 + 집체소유
 - 선 토지개혁, 후 제도적 추인

3. 1980년대 외자 유치를 위한 토지제도 변화

□ 일반적인 토지 관련 제도 변화

- 1984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 제정
- 1992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토지이용권 설정 가능성 인정(15조)
- 1993년, '토지임대법' 제정 및 토지이용권의 인정
- 1998년, 헌법 개정으로 "특수경제지대" 창설 근거 마련

□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경제관리방식으로 전환 노력

- 2002년 7월 01일,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 2012년 6월 28일, '6.28 신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 2015년 5월 30일, '5.30 조치' 발표

● コンセマ州 관광 No. 91 | 19 8 N

4. 산업별 부동산 제도 주요 변화

i

- 1) 1차 산업(농업): 협동농장의 개혁 조치들
 - □ 가족 단위 경작 방식인 포전담당제 실시
 - 북한의 1990년대 초 경제난으로 농촌 토지제도 중대 변화 결정적인 계기는 2002년에 공포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7.1 조치' 실패 후 2012년 <6.28. 신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중국의 승포제(承包制)와 비슷한 '가족 단위 경작제' 허용
 - □ 나진 특구에서 협동농장을 작업반 단위로 분할하여 국유 기업소 산하로 재배치

4. 산업별 부동산 제도 주요 변화



- 2) 2차 산업: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공장·기업소의 개혁 조치
- □ 개발구법 제정(2013년 5월), 현재까지 지방에 22개 지정
 - 기본적인 토지사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경제특구와 유사. 다만 북측 기업 단독 진출 가능
 - 인프라는 외국 투자기업이 책임지는 한계. 남측 경협자본 진출 필요
- □ '6.28 조치'를 통한 기업경영책임제
 - 공장, 기업소가 독자 생산, 생산물 가격과 판매방법 자체 결정
 - 중소 규모의 공장, 기업소에서 독립채산제와 월급제 채택
 - 기업소는 생산액의 30%를 국가에 '지대 ' 로 납부
 - '6.28 방침'은 북한 전역의 모든 공장과 회사,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5.30 조치 ' 로 이어짐

4. 산업별 부동산 제도 주요 변화

- İ
- 3) 3차 산업(상업): 도시공간 사용에 있어서의 개혁 조치들
- □ 장마당의 합법화
 - '7.1 조치'로 상인들에게 자릿세 부과, 장마당 부분적으로 수용
- □ '살림집법' 제정(2009) 및 사용료 징수
 - 살림집은 크게 도시형살림집, 농촌형살림집으로 나뉨.
 - 살림집 사용료 납부 의무(살림집법 제42조 제1항).
 - 살림집 사용료는 매우 낮은 수준. 일반 노동자의 평균생활비를 5000원 가정, 한 달 사용료는 생활비의 2-3%(문흥안, 2012).
 - 최근 지천규가 쓴 책에서 려명거리 주택이 북한돈 240원(우리돈 2700원)

4. 산업별 부동산 제도 주요 변화

- **i**i
- 3) 3차 산업(상업): 도시공간 사용에 있어서의 개혁 조치들
- □ '부동산관리법' 제정(2009) 및 부동산사용료 징수
 - 1990년대, 국가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는 사회협동단체, 공장, 기업소 등 생산 단위와 서비스업 단위에서 사용료 징수 시작
 - 2006년대,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 노두철 부총리가 북한 전 지역의 부동산 조사사업 실시 요구 후 본격 추진
 - 가격제정기준 유형화
 - 1) 경영형 토지: 농경지, 산림
 - 2) 건설용 부지: 산업시설, 주택, 공공시설
 - 3) 지하자원
 - 2007년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당해 년 예산 수입에서 부동산이 15.4% 증가율을 감당한다고 발표

4. 산업별 부동산 제도 주요 변화

ΪŘ

- 4) 개혁 조치에 있어서의 공통점
- □ 토지 등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지 사용료, 부동산 사용료, 자릿세, 살림집 사용료 등의 형식으로 '지대' 납부
- □ 이러한 방식은 토지 등 부동산 사용주체의 재산권을 인정 및 보호하면서 이들의 생산의욕을 끌어 올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음

5. 부동산 시장 현황

TR

- 1) 김정은 시대, 미래과학자거리(2015.11), 려명거리(2017.4) 조성
- □ 려명거리 사업 개요
 - 부지면적 : 약 90만 제곱미터(약 27만 3천 평)
 - 총 건축면적: 172만 8천여 제곱미터
 - 총 예산 : 북한 돈 약 222억여 원(미화약280만달러)
 - 인구 : 총 1만 2천 명의 평양시민들 입주
 - 규모 : 최대 82층의 아파트를 비롯해 신축아파트 44개 동 총 4,804세대, 학교 6개, 유치원 3개, 보육원 3개, 세탁소, 편의시설 등 40여 동의 공공건물 신축
 - 기존 아파트 33개 동 및 공공건물을 포함하여

총 70여개 동 리모델링



(출처 : 페이스북)

○ 녹색도시, 에너지절감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건물에 생태녹화기술 도입, 도시녹화 추진, 빗물 회수 이용기술 적용

◆ 려명거리 아파트 내부 사진







5. 부동산 시장 현황



2) 부동산시장 작동 메커니즘

□ 출현 배경

- 북한 1세대의 정년 및 내 집 인식 강화, 1980년대 재일동포의 이주,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 등으로 주택수요 급증, 그러나 주택공급은 제자리. 권력층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거래
-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주택공급 중단,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배정받은 살림집을 달러와 교환, 살림집 거래 본격화
- '장마당' 형성 및 발전 → 역 주변, 시장 인근 살림집 수요 촉발 → 살림집 거래 활성화. 빈집이 주요 주택공급처
- 2017년 북한 주택보급률은 60%(주택금융연구원)

5. 부동산 시장 현황

İĸ

□ 주택 거래 방식

- 돈을 주고 주택 사용권을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그러나 허가증의 명의 변경은 편법일지라도 불법은 아님
- 각 시·도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에 사용자 이름을 구매자 이름으로 바꾸는 식
 - 부동산 거래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 암묵적 제도화
 - 탈북자 설문조사, 주택 구입: 66.9%, 국가 배정: 14.3%
- 입사증에는 사용기간 없음, 상속 가능
- 각 지역이나 연합기업소의 주택지도원들이 부동산중개인 역할을 하며 허가증 명의 이전을 처리하고 중개료를 챙김

5. 부동산 시장 현황



□ 살림집 증·개축에서 시작된 부동산 개발의 진화(문흥안, 2017)

- 1단계(개인 주도) : 살림집 증·개축과 교환
- 2단계(개인 주도): '개인주택' 신축 및 판매
- 3단계(정부 주도-민간 참여): 아파트 건설 및 분양
- 4단계(민간 주도-정부 지원) : 아파트 건설 및 분양
- 5단계(정부-민간 협력): 주택위탁사업소 중심 재건축·재개발

□ 주택가격 급등

- 평양 고급 별장은 m²당 약 8천 달러. 신의주도 주택 매매가격이 m² 당 5천 위안(한화 84만원)
- 평양에서 50년 넘은 낡은 아파트는 \$3천~3만 선, 신축 아파트는 최소 \$10만 (한화 약 1억 원)

□ 다주택자 형성

-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에게 200~300달러(약 22만~33만원) 주고 명의를 빌려 집 구매
- 북한 거주 화교 중에 다주택자 등장(회령, 32가구 56채 보유)

6. 북한 부동산제도 평가와 전망

Th

1) 평가

- □ 제임스 미드(James Edward Meade)의 '자유 사회주의' 이론
 - 1977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 계승
 -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유자산의 시장운용 수익을 통해서 세수와 국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의존을 줄여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 국유 토지 민간 임대 ⇒ 민간 세금부담 낮춤 ⇒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시스템 작동
 ⇒ 정부 토지사용료 확보 ⇒ 경제 성장에 따른 토지사용료 수입 증가
- □ 큰 틀에서 북한 경제는 미드의 이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

6. 북한 부동산제도 평가와 전망



□ 다만, 다음의 지점에서 한계

- 경제특구와 개발구 이외의 지역에서 개인 및 기업에게 토지사용권이 허용되지 않음
- 개별 가구단위의 농지경작권이 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음
- 민법 규정과 달리, 현재 주택소유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살림집 사용료 부과수준이 낮아, 부동산 개발 및 살림집 매매가 투기적으로 전개

6. 북한 부동산제도 평가와 전망

TR

2) 전망

□ 발전 전략

- 관광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 추진
- 부동산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 추진

□ 제도변화

- 경제특구 재산권 모델의 일반화
- 농지경작권의 가구별 분배 및 농지 소유권 국유화

□ 부동산 정책 변화

- 도시 살림집 토지사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합법화
- 개인간 주택거래 합법화
- 투기방지책: 부동산사용료 인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환매권

7. 사회적경제 지원전략

11

□ 일반 원칙

- 공공토지임대제는 자립경제의 핵심 기초: 토지가치 환수 시스템
- 사회적경제 전략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
- 다만 북과 협력할 때 '사회적경제'라는 자본주의 국가 맥락에서 형성된 개념과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는 고민 필요
 - 자칫 우리식 개념과 방법론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마찰 발생
 - 북의 사회주의 경제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모색할 지가 중요함

7. 사회적경제 지원전략

i

□ 도시

- 현재 존재하는 북한 내 사회적경제 씨앗들 활용 전략
 - · 장마당 소매협동조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함(이찬우, 2019). 한국의 아이쿱 등 생산판매형 협동조합이 결합하여 지원
- 향후 북한의 주택 소유권제도 및 주택 공급체계 변화 예상
 - · 한국 주택협동조합이 어떻게 진출해서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
- 향후 북한의 도시재생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한국의 마을 만들기 경험이 어떻게

적용가능할지 탐색 필요

- 부분적으로 적용된 에베네져 하워드의 '전원도시' 전략 완성
- 북한의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를 국제기구로 편입시켜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도 필요함

7. 사회적경제 지원전략



□ 농촌

- 협농농장-농촌 협동농장(작업반)과 1:1 협력을 통한 자립 지원(하나누리)
- · 1단계 자립 → 2단계 자립 → 3단계 자립
- 협농농장이 작업반 단위로 해체되어 국영 기업소로 재배치 중.
- · 단순한 농촌 자립을 넘어 기업-농촌, 도시-농촌을 함께 보는 접근법 필요 (가령, 중국의 향진기업 전략)
- 농촌의 주택문제 심각
 - · 한국의 일방적 주택개량 및 공급은 북의 자립성 향상에 저해
 - · 농촌 공동체의 부가가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힘으로 주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촌의 부채문제 심각
 - · 사회적 금융 지원 필요성 분명 (돈주)





중국의 사회적 기업과 농촌 재건

저우리 (周立 Zhou Li)

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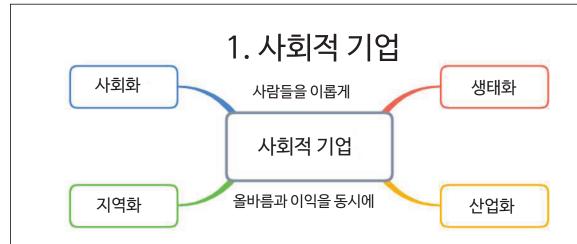
School of Agriculture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Renmin University of China



www.sard.ruc.edu.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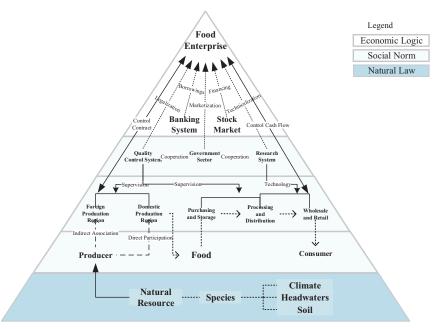
zhouli@ruc.edu.cn



- 사회적 기업은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따르는 사업체다.
- **사회적 임무**: 사회적 기업은 고유한 사회적 임무를 가져야 한다. 사회 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법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 점에 있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핵심 제품: 사회적 기업은 자신만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해야 한다.
-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분명하고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분배: 이윤 분배의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은 배당금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이윤을 환원한다.

상업적 기업 → 사회적 기업 → 생태-사회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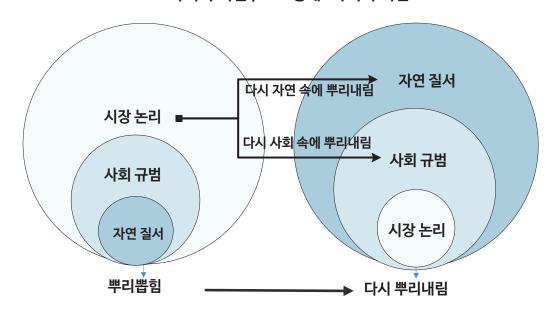
1.0 상업 자본 / 사업 자본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뿌리뽑힘의 이중적 과정: 시장이 사회와 생태 위에 있다. 하지만 시장은 사회와 생태에 되돌려주지 않는다.

상업적 기업 → 사회적 기업 → 생태-사회적 기업

2.0 사회적 기업 / 3.0 생태-사회적 기업



다시 뿌리내림의 이중적 과정: 시장은 사회와 생태에 뿌리를 내린다. 수익을 내면서도 사회적 목적과 부합한다.

상업적 기업 → 사회적 기업 → 생태-사회적 기업

소위 사회적 기업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무한다는 기업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모두가 이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익재단이다. 모든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점석성금點石成金 -녹수청산綠水靑山을 금산은산金山銀山으로 바꾸는 것

왜 사회적 기업인가?

- ▶ 국제적 배경: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사회는 경제적 위기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는 서구 사회가 근대화 이론과 그 경로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경제와 정치의 많은 측면에 대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 중국적 배경: 생태적 문명화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전략. 2007년말 "농촌 재생 전략"이 제안되었다. 이것의 목표는 "산업적 번영"이었으며 "농촌 지역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의 통합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 요구되었다.
- ➤ **농촌 재생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갖는 핵심**은 생산요소들이 농촌 지역과 농업에 복귀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단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지역 사회적 기업

▶ 현재 운영되는 중국의 사회적 기업들

재편된 전통적 사회 서비스 기관, 비기업 민간 단위, 협동조합 등

▶ 중국 사회적 기업의 역사적 맥락과 지역적 특성

지역문화적 특성: "gongfield", "의창義倉", "마을 학교"로 대변되는 천년 이상 내려 온 공동체의 공공체계와 더불어 공생과 공유의 관념은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지역 사회에서 성장한 농촌의 많은 경제적 단위들은 청조 말기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그 자체로 사회적 기업이었으며 신중국 시기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과도한 기업 투자의 위험을 해소하고 농민들 간의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으며 지역 공동체 건설에 직접 참여했다.

이는 경제와 사회가 모두 이익을 얻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중국의 전통 문화와 지역의 사회 • 경제적 환경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보다 심층적인 사회적 토양에서 자라나며 이는 현실적인 깨우침을 준다.

근대의 사회적 기업: 산업 구국



장젠(1853-1926)은 포괄적 지역 개발 시범 지구를 처음으로 구축한 사람이다. 그는 "신촌주의新村主義"와 "산업 구국"을 옹호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을 근거지로 농촌의 기초 시설 건설을 장려했으며 면방적 기업에 공급할 원료를 위해 목화씨의 개량과 재배 촉진을 주창했다. 그는 20개 이상의 회사와 370개 이상의 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회사의 수입을 이용해 양로원, 유치원, 대피소,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과 같은 사회 사업을 일으켰으며 이는 난통南通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1925년 중국 근대기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회사였던 민생실업공사民生實業公司를 설립한 루저푸는 1927년 이후 중국 서부의 베이베이를 중심으로 농촌 건설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베이베이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민생실업공사의 목표: 사회에 대한 복무, 대중 참여의 촉진, 산업 발전, 국가 번영

현대의 사회적 기업: 1980년대와 90년대의 농촌 기업

● 중국 고유의 "신촌주의" 계승: 농촌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고용과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의 수입은 주로 농촌 공동체 건설과 마을 구성원들을 위해 사용된다.



1980년대 초반 저장浙江에 위치한 한 농촌 기업의 신발 제조 작업장

현대의 사회적 기업: 1980년대와 90년대의 농촌 기업

- 농촌 산업화의 제도적 이익: 대외 채무 압력 경감과 내수 진작
- 1. 농촌 개혁과정에서 이루어진 독자적 산업화는 농민 소득의 증가와 내수 진작을 일으켰으며 나아가 이는 도시화와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요구를 추동했다.
- 2. 산업 구조와 농업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는 서구의 생산 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1980년대 초반의 위기 상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시無錫의 노동 집약적 농촌 기업

현대의 사회적 기업: 1980년대와 90년대의 농촌 기업

- 농촌 기업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온 내 외적 요인들
- 1. 중앙 정부의 대외 채무로 인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외화를 공급할 것이 요구되었다. **1979년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증가했을 때 국가는 기금, 세금, 원료와 같은 다양한 계획 지표들을 장쑤성과 저장성의 농촌 사대기업**

社隊企業/commune and brigade-run enterprise들에게 제공했으며 지방정부에게는 자주自主 발전의 권리가 주어지기 시작했다(개혁 초기의 분권화)

2.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생산력 해방을 촉진했다:** 농촌 잉여 노동력의 비농업 고용은 1980년대 후반 9,000만명까지 증가했으며 농민들의 비농업 소득의 증가로 인해 농촌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도시 기업의 엔지니어들

마을의 가치

농촌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중한 유산이다! 농촌은 우리의 고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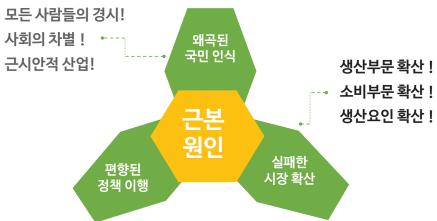
생태: 생태 보존 구역 생산: 녹색 식품과 의류의 근원 생활: 조화로운 거주지

문화: 문화 유산의 토대

사회: 중국 근대화의 안정기stabilizer이자 물탱크! 중국 거시경제 위기가 "연착륙"된 토대!

Dependence: Hundreds of Millions of Peasants Saved China (원테쥔 저): 중국의 혁명, 건국, 개혁의 역사적 과정에서 수 억명의 농민들은 1950년대 토지개혁과 1980년대의 농촌 기업, 그리고 2010년대의 국가생태문명으로 세 차례 중국을 구했다!

균형을 상실한 도농 발전과 불충분한 농촌 발전의 근본 원인들



1. 피드백 메커니즘의 결여

(산업제품과 농업제품 간의 협상가격차, 장기간에 걸친 생산요인의 순유출로 인해 건국 이후 농민들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해 제공한 자본축적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30조 위안에 이른다!)

- 2. 집중화와 분권화의 조합을 바탕으로 한 농촌 기본 운영 체계는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다. (집중화만 있을 뿐 분권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집단적 협동경제와 시장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체계는 포기되었고 바람직한 시장은 발전하지 않았다.)
- 4. **"먼저 부자가 된 다음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도록 돕는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공정함은 실행되지 않았다.** (머리는 자신의 몸을 추동하지 않았다. 보스는 부유하지만 동료는 손해를 본다.)



원테쥔 (1996) "삼농 문제"(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



리창핑 (2000) 실로 농민들은 고통스럽다! 실로 농촌은 가난하다! 실로 농업은 위험에 빠져 있다!

개혁 개방 40년: 농촌의 쇠락과 농촌 재생, 도시화를 배경으로 한 도농통합

문제의 해법: 산업 붕괴 ----- 산업 구조조정

두뇌 유출 ----- 두뇌 유입

<mark>뿌리를 다시 튼튼히!</mark> 조직 붕괴 ----- 조직 재생

조직하자! 문화 단절 ----- 문화 부흥

<mark>힘을 모으자! 생태 파괴 -----</mark> 생태 회복



신농촌건설운동 20년(1999-2019) 중국인민대학 농촌건설센터 주관

포괄적 재생 (다채로운 마을)

그린그라운드 농촌건설 사회적 기업 연합(2018)

교육 재생 (배움을 실천으로) 시난대학 중국 농촌건설원(2012) 푸졘 농림대학 해협농촌개발학원(2013) 용춘 생태개발 연구원 (2017)

문화 재생 (지역 문화) 고향사랑 (2012), 홍농서원 (2013) 신노동자 교향악단 (2002), 랜드 발라드 (2014) 경독대학耕讀大學(2017)

산업 재생 (생태 농업) 작은 당나귀 농장(2008), 옥토공방沃土工坊(2008) 수확 나눔 농장(2012), 쯔농 배움 관광(2014) 공동체지원농업(CSA) 협의회 (2009)

신농촌건설운동 20년(1999-2019) 중국인민대학 농촌건설센터 주관

조직 재생 (<u>농</u>민 협업) 제임스 옌 농촌건설학교2003-2007) 제임스 옌 인민교육발전센터/공동체대학(2006) 량수밍 농촌재건센터(2004)

두뇌 재생 (청년 귀향) 대학생 농업 지원을 위한 연구 (1999)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년인재 육성 프로그램(2005) 작은 당나귀 농장의 CSA 생태 농업 인턴 프로그램 (2008)

생태 재생 (환경 보호) 생태 농업 (2004), 생태 건축(농촌 건축 스튜디오/ 인민건축 2005) 분뇨분집식 화장실(2004) 쓰레기 분리수거(2005) 발효대 조성(2008) 습지 복원 (2017)

그린그라운드 그룹 : 공익재단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2003-2018)

I. 응답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은 무엇인가?



삼농 문제 도농 격차



식품 안전 땅을 벗어난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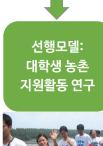
향수의 기억, 과거와 현대의 단절



농촌 재생, 도농 복합

그린그라운드 그룹: 공익재단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2003-2018)

II. 기대야 할 조직 플랫폼은 무엇인가?



허베이 제임스 옌 농촌건설학교

베이징 작은 당나귀 농장

고향 사랑

그린그라운드 ____ 농촌건설 사회적기업 연합



建設你村



도시민을 문화 부흥. 사회적 참여



다채로운 농촌. 포괄적 재생

농촌에 초점. 자발적 형성

생태 농업. 환경친화적 농촌

농촌으로, 농업을 도시로

그린그라운드 농촌건설 사회적 기업 연합 다채로운 농촌, 포괄적 재생(2018~)



농촌 재생 씽크 탱크



농촌 문화 부흥





생태와 산업의 수렴



아름다운 농촌 건설

五位一体综合服务体系 다섯 가지 과제가 하나의 포괄적 서비스 체계 속으로!



그린그라운드 농촌건설 사회적기업 협의회: 농촌 재생 플랫폼































베이징 작은 당나귀 농장

2008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사회적 생태 농업 CSA 농장이다. 도시민의 농촌 영농 활동을 개척했다.



생태: 사육과 재배의 결합을 고수, 생태 기술 장려

산업: 도시민 농업 개발, 생산과 마케팅의 통합 촉진

인재: 새로운 농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황푸 군관 학교" 설립

조직: 전국적 CSA 네트워크 건설 촉진

문화: 지역 문화 확산, 도농 통합 촉진



베이징 작은 당나귀 농장

작은 당나귀 농장은 베이징의 하이뎬 구에서 10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농촌의 주요 상징이 된 생태적 CSA 농장을 수천 개 이상 육성했다. 농업 교육, 종사자 양성, 기술 장려, 농산물 직거래 시장, 참여형 인증 제도(PGS), 애향 운동 등의 분야에서 전국적 시범지구가 되었다.



CSA 농장과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 • 概念创新,资本引入,项目带头 개념 • 자본 대학 • 运营管理,全面统筹,多方共赢 企业 기업 • 정책 • 相关政策支持,促进产业模式转型 • 기금 • 提供资金补贴,获得产业长期收益 政府 정부 NGO • 消费生态产品, 促成城乡贸易 • 소비 경험 • 通过体验参与,帮助产业提升 市民 시민 • 组成生产合作社,提供生产劳务服务 협동조합 • 租赁土地使用权,获得土地出租收入 토지 농민 以及高校、NGO、媒体等 사회의 다양한 참여

CSA 농장과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

6대 공공 복지 프로젝트:

CSA 전국 컨퍼런스, 인턴 프로그램, 도농교류와 지속가능성, 애향 공공복지 활동, 생태농업 상호부조 네트워크, 중국 CSA 시범 센터



6대 사업 운영:

일자리 공유, 분배 공유, 작은 당나귀 건강 상품권, 자활 가축과 가금 분양, 타오바오를 통한 보건서비스 제공, 레저 농업

후이롱관

<mark>녹색 연합</mark> Susie's Mom,





공동체 식품 매장/ 유사 소비협동조합



베이징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시장 Chang Tianle, 2011 식품을 알자



베이징 수확 나눔 농장 Shi Yan, 2012

사회적 생태 농업 CSA 연합





농민들이 운영하는 생태적 농산물 판매플랫폼

> **광저우 옥토공방** Hao Guanhui, 2008

옥토공방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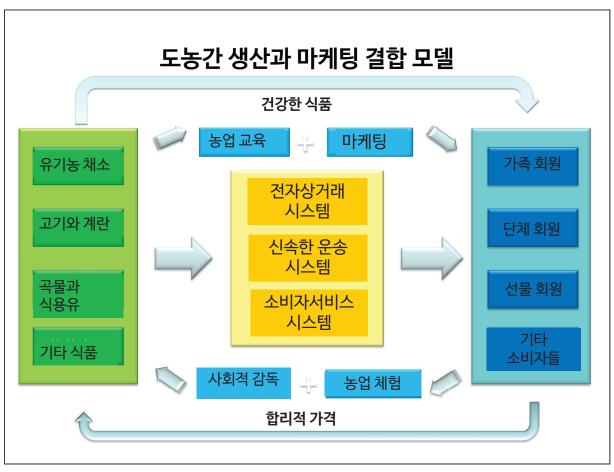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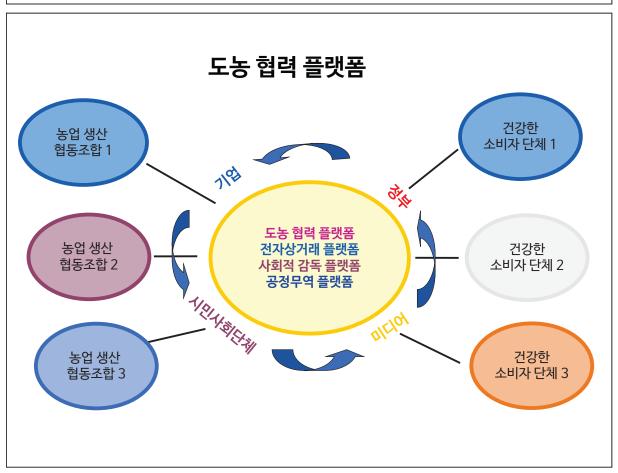
베이징 작은 당나귀 농장

Hao Guanhui, Yuan Qinghua, Huang Guoliang Huang Zhiyou, Shi Yan Yan Xiaohui 상하이 위가든 Yuan Qinghua,2014

도시 공동체 공간개조 서비스 공급자









고향 사랑愛故鄕 (2012년 설립)



인재를 핵심으로 삼아

조직을 매개체로 삼아

농촌 건설을 목표로 삼아

고향의 아름다움 발견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 발굴 지역 문학/ 지역 박물관 생태 문화 축제

탐사: 올해의 인물 전환: 특정 단체 배양: 청년들의 애향심

작업장 스튜디오 컨벤션

애향 기지 농촌 재생 시범 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













지속가능한 식품유통 플랫폼, 2008 2008年 可持续食物体系流通平台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보급, 2015

2015年

可持续农业技术传播



可持续农业 📟

沃土可持续农业发展中心

2017年 从业者人才培养 可持续生活理念传播

종사자 양성, 지속가능한 생활 이념 보급, 2017



쯔농 배움 관광

滋农游学

농촌 자연 교육,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관광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水上農耕學教



배움 관광

(축산 복합단지)

후이셴 공익재단 (Son of Land)

쯔농 배움 관광 은 농촌 자산신탁 운영자이다. 농촌 관광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농촌 자산이 활성화되고 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쯔농 배움 관광은 2014년 5월 설립되었으며 2015년 9월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3A 등급의 농촌 관광 명소에서 3회의 홈스테이 행사와 15회의 연구 교육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현재 농촌 배움 관광 공급자에서 농촌 자산관리 운영자로의 변신을 꾀하며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랜드 발라드Land Ballad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랜드 발라드는 20,000km를 여행하며 중국의 136개 마을에서 투어 공연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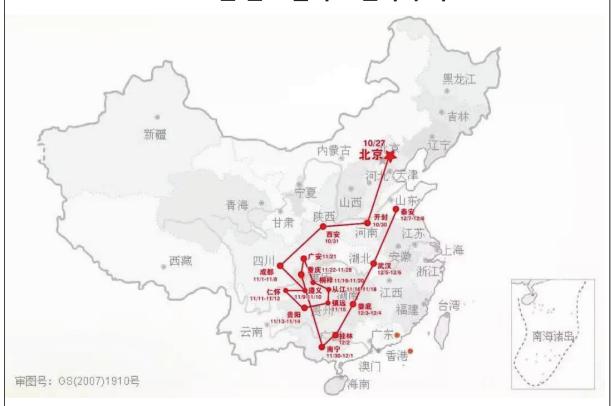




랜든 발라드는 중국에서 가장 실천적인 포크 밴드이자 대중 예술 기획자들이다. 그들은 추위융위안이 주최한 "일하는 춘절 저녁" 행사의 발기인이며 중국 유일의 노동 박물관을 건립했다. 그들은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 지역 출신의 풀뿌리 가수들이자 "애향 • 애촌 가요 프로젝트"의 기획자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포크 음악이 이상적 노래라고 주장하는 가수들이며 농촌 풀뿌리 문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선진 노동자들이다.

2018년 랜드 발라드 전국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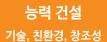




상하이 위가든WeGarden (2015년 설립)

도시 속으로 들어가는 농업 주창, 도시 소규모 공간 개조; 녹색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삶의 영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거버너스 촉진







시스템 건설 통합, 지속가능성



당간 건설 사적 공간-공적 공간-공적 의제 친환경의 기능, 문화의 기능, 교육과 공간미화



공동 건설 공동 거버넌스 공유



도시 농부 도시 정원사 도시 목수 도시 만화경



선전深圳 나무 농장 (2014년 설립)



나무 농장은 선전 바오안구 티에강호湖의 제2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바오안구 도시관리국과 협력해 설립한 쓰레기 분리수거 • 감축 시범 기지이기도 하다. 여기서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환경 보존 교육이 이루어지며 자연 학습, 영농 체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과 같은 레저 농업 활동이 진행된다.



선전深圳 나무 농장 (2014년 설립)

나무 농장은 생명기술을 토대로 한 생태 농업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나무 농장은 생물학적 세균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 유기농 쓰레기를 유기 비료와 바이오 사료로 가공하며 유기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 • 실행하고 있다(특허 출원 진행중). 나무 농장은 선전의 수목 환경 보호 단체와 협력해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진행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획득했으며 많은 수상이력이 있다.





산시 노석청농老石靑農 (2016년 설립)







현재 소규모 농장들과 함께 생태적 농산물을 제조 • 가공하며 농촌 체험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탐구하고 있다.



산시 노석청농老石靑農 (2016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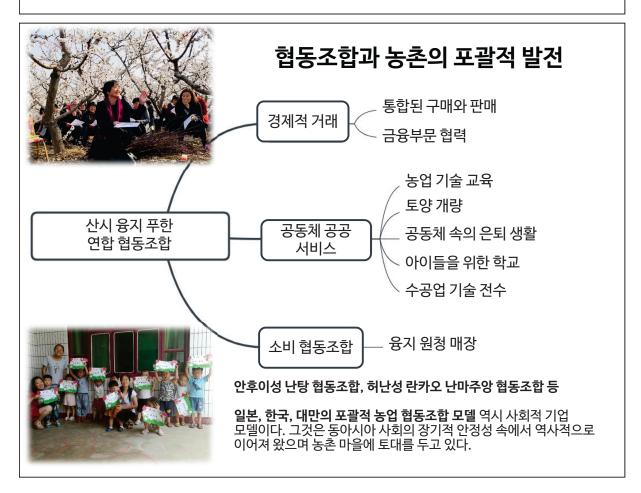
진행중인 브랜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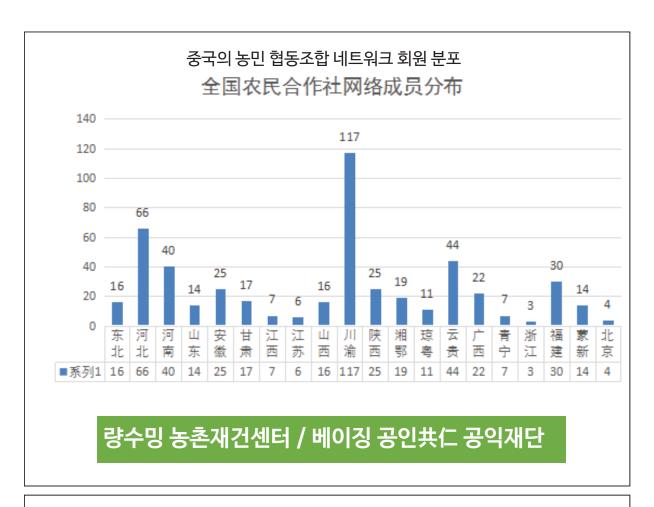
- 소농의 생산과 생활양식을 기록과 공유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터넷 기술 활용
-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PGS(참여형 인증 제도) 탐구
- 생태적 발효대fermentation bed 조성 기술 장려
- 청년 귀향을 위한 상호부조 네트워크 구축













청두成都 슬로우 라이프 (2018년 설립)

슬로우라이프는 소비자들에게 천연의 건강한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도농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허난성 홍농서원弘農書院 (2013년 설립)

홍농서원은 "존중의 윤리, 함께 하는 생태"의 철학을 고수한다. 중국의 우수한 전통적 관념들을 홍보하고 평화와 사랑을 촉구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생태 농업을 조직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서원은 또한 지역의 지식과 문화, 중국 의학에 대한 지식을 탐구한다.





사회적 생태 농업 CSA 연합

연합은 사회화된 생태 농업 분야에서 전문적 변호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단체가 되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 연합은 CSA 모델을 인정하고 지원할 의사가 있는 전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생태 농업의 상호부조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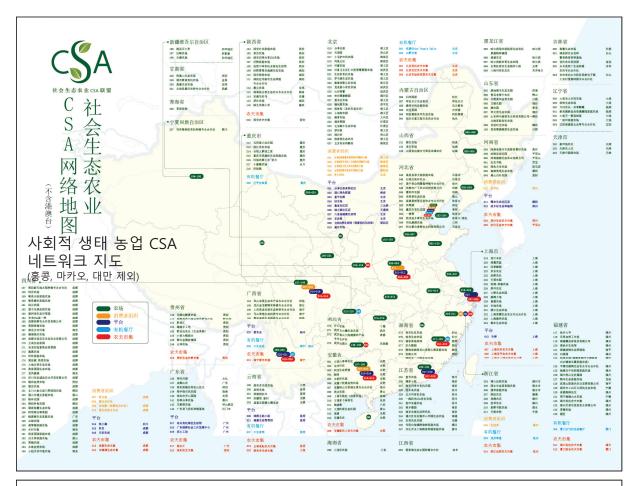








주요 업무: 관련 주제 연구, 매년 열리는 CSA 컨퍼런스 주최, 참여형 인증제도(PGS) 확립 촉진, 훈련과 교육 조직





유명한 "삼농" 학자이자 현대적 농촌 건설을 선도적으로 실천했으며 학계의 리더이기도 한 원테쥔 교수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루궈지, 량페이콴과 얀홍궈가 명예 의장으로 있으며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농촌 건설 운동을 개척한 루저푸와 량수, 그리고 제임스 얀을 계승하고 있다.





中國鄉村建設學院 중국 향혼재건학원

Institute of Rural Reconstruction of China





연구 범위는 주로 다음의 대상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 건설"의 학제간 연구분야에 대한 이론적 조사, 농촌 거버넌스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 연구, 농촌 건설의 역사적 경험, 지역 혁신에 대한 경험 조사, 사회적 서비스, 교환과 협업에 대한 선진적인 국제 경험 연구.



福建 農林 大學 푸졘 농림대학 해협향혼건설학원

대학은 주로 실험 조사와 농민들의 포괄적 협동 조직, 농촌 기금의 상호 부조, 생태적 농업, 도시민 농업(참여, 교육, 체험), 노동자에 대한 공동체 교육, 그리고 농촌 공동체 대학에 대한 경험 조사와 홍보를 수행하며 특별 교육과 특수 교육과정 수립의 형태로 푸졘 농림대학의 교육 개혁에 참여하고 있다.





생태 자원과 문화 유산의 가치 집합적 경제와 3차 시장: 자원 주권, 산업 주권, 금융 주권 (농민에게 분권화를)



도시민을 농촌으로 / 농민 합작 투자 새로운 농촌 지주 거버넌스와 도농 통합 발전



사회적 기업가 정신 고취 /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과 농민을 사랑하는 사회적 기업 양성



나라 전체를 위한 농촌 재생에 복무(현縣 지역)

영혼으로서의 지역 문화

뼈대로서의 생태 기술

고향의 미래를 창조하자!

그린그라운드 농촌건설 사회적 기업 연합

혈관으로서의 경영

고향에 대한 복무, 촌과 읍의 관리, 지속가능한 삶은 운명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새로운 농촌의 삶을 집합적으로 창조하고 공유한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행동 속에서 우리의 땅과 삶, 영혼을 살찌우는 것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첫째는 고용인, 다음은 이용자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가?

행복





농촌 재생 시범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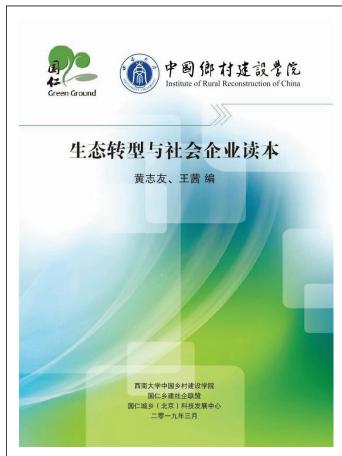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기업 스튜디오



그린그라운드 농촌 재생 포럼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운영





사회적기업 연구원



삶과 수백 농촌 산업의 변천 중국의 사회적 기업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강력한 사회 (실천적 정부, 효율적 시장)

정부와 시장이 사회의 몸에서 자라게 하자! 그것을 사회로부터 떼어낼 것인가, 아니면 사회 속에서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



[주제별 발제]

사회적 금융과 북한

김광욱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 사회적금융의 혁신적인 모델로서 북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발금융이 국제적 차원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UN SDG) 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UN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SDG의 목표를 이행하기까지 현재 연간 2조5천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 2조 5천억 달러가 상당한 액수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불과1%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민간금융재원에서 단 1%만 글로벌 개발 목적 의 투자로 전환된다면 현재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발기관과 정부, 장기적 비전을 지닌 민간부문의 리더, 재단, NGO가 여기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은 이를 "빌리언즈 투 트릴리언즈 어젠다 Billions to Trillions agenda"라고 부른다. 세계은행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은행의 자금을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을 움직여 전세계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민간부문은 세계가 처한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개인, 기업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는 자본 소유자(가족의 부를 상속받거나 부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조언하는)로서 부상해 새로운 소비방식(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밀레니엄 세대에 의해 시작되었다.
- 더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과 사회적 금융에 의한 혁신적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 혼합금융: 민간 자본을 박애주의 혹은 공공 자금과 결합해 민간 부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최근 분쟁이 일어났던 국가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동원 등의 거대한 사회적 성과를 달성한다. 예를 들어: (a) 새로운(위험한)

곳에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좀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보장(소규모 농장주를 위한 자금조달 혹은 새로운 혁신기술) (b) 자선단체 혹은 분쟁지역에 도움을 주는 민 간부문 임팩트 투자의 리스크/수익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타당성 연구에 자금제공

- o 지속가능금융: (a) 자산관리사가 사회적 환경적 행보(환경, 사회, 거버넌스 혹은 ESG 기준 관련)에 긍정적이었던 상장회사를 선택하는 방법인 배제 스크리닝(exclusive screening), (b) 피난민, 미성년 같은 취약그룹을 돕기 위한 투자자금 등의 임팩트 투자(금융적, 사회적 수익을 동시에 발생)를 포함한다.
- 기업가 육성: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며 여성과 청소년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다.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육성,
 엑셀러레이터, 사업가 투자지원을 위한 혼합금융 등의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ㅇ 각 부문의 역할

- 민간부문: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민해보는 시스템으로 장기적 수익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기업 리더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다른 글로벌리더들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또한 은행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안정적인 자산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은 사람, 수익, 환경을 둘러싼 장기적인 고민을 유도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 재단과 생태계 빌더 (a) 사회적금융의 혁신에 대한 응용 연구, (b) 화합 이벤트, (c)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에 동참(집합적 임팩트 방식 등), (d) 연구 결과로 인한 생태계 격차 관련 프로젝트 시행 (예를 들어, 장기 투자전략, 임팩트 투자 기회, ESG 전략을 연구하는 자산관리자를 위한 더 나은 정보).
- 정부: 우선적으로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시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업영역을 평준화 한다(예: 독과점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마련(환경적, 사회적 안전보장조치 설치 및 강화). 또한 정부는 (가장 혁신적인 사회적 금융 개발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등) 권위있는 명예부여자로서 역할 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영향으로 인한리스크로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 펀드를 조성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 비즈니스와 투자 모델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견고히 조성하기 위해 재단 혹은 다른 생태계 빌더(대학, 상업조합)와 협업한다.

● 북한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그 다음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로 옮겨 가기보다는 위에 언급한 혁신사안들은 전반적으로 직접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과 수익과 비즈니스 모델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북한의 경제구조와 결합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등 북한의 독특한 환경과 조건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세계사회와 관계를 맞을 때 언급되는 핵심 프레임은 이러한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을 포함하는 장기적 사업과 투자모델이다. 이러한 모델 하에 있는 사업이라면, 결국 채굴 대 농업 모델로 귀결 된다: 1년 내에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는 일련의 질문을 던진다(자원을 축출해내는 채굴모델). 100년 내에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된다(자원을 유지해야하는 농업모델). 북한이(그리고 미래에는 남한이) 전통적인 자본주의가 낳은 실수들을 수정하고 전 세계에 걸쳐 부상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이라는 혁신적 접근을 통해 북한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 시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대변도약교 사회적 경제의 기능성

종합토론

- '북한 개혁개방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전략 논의'
- · 해외 사회주의권국가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접근 방식 및 원칙은 무엇인가?
- · 새로운 경제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 등장을 위한 조건은 무엇 인가?
-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종합토론]

토론문

라파엘 베탕쿠르 쿠바 하바나대학교 교수

1. 해외 사회주의권국가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접근 방식 및 원칙은 무엇인가?

쿠바를 제외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맥락에서, 특히 자본주의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 배제, 그리고 심화된 불평등의 순간에 탄생하고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사회적경제는 집단적 행동을 통해 민간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보호한다. 사회적경제는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제한적인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모델에서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것도,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등장한 것도 아니었다. 도리어 계획경제에 시장경제를 도입해생긴 반응과 결과로 인식되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의 범주에 속하기를 거부하며 주변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2. 새로운 경제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 등장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결국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와 경제 엘리트들은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가 권력을 공유하고 집단적 행동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당연히 정치적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권력이 집중되어 민주적 전통이 약한 사회에서는 중앙 권력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법적 체계, 제도,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서 지역, 자치단체, 지역사회에 권력을 분산하여 이들이 국가적 전략과 연계된 지역개발을 주도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는 시장 내 취약부문, 배제된 부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미개발 지역의 빈곤지구를 철거하고 다양한 플랫폼과 참여 프로세스를 통한 협동을 유도해야 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서로를 통해 배울 점을 찾고, 이미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에서 뿐 아니라 경험이 혼재되고 정부 지원이 일정하지 않은 제3세계를 통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 단체는 언제나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역량을 철저히 키우고 거버넌스 기술을 갖춰 내부적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집단적 행동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센터와 협업해야 한다. 또한 재단, NGO, 그 외 민간부문을 포함한 자금 제공처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효과적인 행동을 가능하게하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종합토론]

토론문

소냐 노브코빅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교수

1. 해외 사회주의권국가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접근 방식 및 원칙은 무엇인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노동자를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소유된 자산들을 통제했던 사회주의 경제였다.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정치적 비전에 기반을 두었다. 즉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자본의 역할을 경제 재정화의 수단보다는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 한정시켰던 정책 및 SE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했던 것이다.

과도기를 거친 현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는 주로 EU의 정책들 또는 국제적인 SE 네트워크, NGO 및 재단들 등의 영향에 따라 비주류적 부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 지향적인 경향을 띤다. 그 중 일부는 자리를 잡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긴축정책들, EU의 추진, 국제 NGO들 그리고 우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생기고 성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종종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띠기도 하므로, 경제 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와 관련되지 않기도 하다. 오히려 기업가적 활동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대개 과도기에 발생되었다.

이 접근방법의 문제는 사회의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분리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사안들과 환경적인 사안들이 외부적인 것으로 다뤄지는 것이다.

2. 새로운 경제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 등장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행동의 자유, 지역적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차원에서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조직화되 도록 이끌 우대정책, 교육, 지역정부의 후원, 기금마련의 용이성, 정책 환경

3.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북한의 사회 활동 주체들을 연계시켜라. 시민 사회와 문화적 연결이 중요하다. 지식을 공유하라. -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남한에서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적절한 정책들을 통해 자유화의 부정적 결과들을 막을 수 있는가? 자유화가 자본주의 시장을 암시해야 하는가? - 협동조합 형태에 대해 교육하라. 세계 협동조합의 동향을 파악하라. SE가 그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신기술은 새로운 소유구조를 필요로 한다. 플랫폼 협동조합들을 교육시키고 연계시켜라.

사회적경제 활동주체들은 양국에서 SE를 번성시키기 위해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민 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해 남한의 정책에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토론]

토론문

저우 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1. 해외 사회주의권국가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접근 방식 및 원칙은 무엇인가?

형가리 출신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야노스 코르나이(János Kornai) 하버드대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를 연구했다. 그는 〈대변화〉라는 책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 전환에 관한 두 가지 대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성장은 제도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며, 경제성장만으로 경제체제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정치개혁과 법률제도개혁 모두 전환기의 중요한 영역이다. 경제전환기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이들 영역에서 적절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개혁은 어려운 문제이나 미루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하며 피할 수 없다. 어려운 과제라도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 희생 없는 개혁은 없다. 개혁의 규모가 클수록, 대가가 비쌀수록 더욱 그렇다. 문제를 한 없이 미룬다면 더욱 복잡해지고 지불해야 할 대가도 더 커진다. 정책결정권자가 과감하게 개혁을 결심할 용기를 잃을 수도 있다.

나는 코르나이 교수의 원칙에 찬성한다. 그러나 코르나이 교수나 자유주의자가 좋아하는 "심연을 두 걸음에 건널 수 없다"는 말처럼 동유럽의 충격요법은 반대한다.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을 실시했는데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천천히 체제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했다. 코르나이 교수도 소련과 동유럽 국민들이 충격요법식 체제변화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예를 들면, 대량실업, 빈부격차 확대, 민족주의와 인종 분쟁 등은 나날이늘어갔다. 중요한 것은 쿠르나이 교수의 해결방안은 충격요법에 의한 성급한 자유화가 아니라 냉전시대 억제정책의 회복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서방 또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중국 발전의 다섯 가지 경험(ppt참고)은 경제체제 변화뿐만 아니라 역사전통과 혁명의 유산에서도 기인한다.

- 1) peaceful environment → 40years
- 2) equalization of land: "land to the tiller"; general benefiting system of income distribution
- 3) Sustained economic growth, especially in agriculture
- 4) Powerful political party, effective organizing and mobilizing ability of government
- 5) Tradition of diligence and thrift culture: strong desire for progress

2. 새로운 경제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 등장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거시적 관점과 행동력을 갖춘 사회실천가가 있어야 한다.

- 거시적 관점은 국가적 수요와 세계 흐름을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행동력이 있다면 시범을 보이고 전체 사회의 실천을 이끌 수 있다.

3.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 해결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거시적 시야를 갖춘 싱크탱크로서 사회적경제 층위의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 방안)
-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집행자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주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발전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토론]

토론문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선임연구원

□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은 계속적으로 증가, 설립·운영에서 많은 경험 보유
 - 한국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현재 2,201개, 협동조합은 15,763개가 설립
 - 강원도의 경우 2018년 9월 현재 1125개 사회적경제 기업(협동조합 755개(67%), 사회적기업 176개, 마을기업 118개, 자활기업 76개)이 도내에서 활동
- 향후 북한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정부 앞 참고자료 사전 준비
 - 북한은 무상치료, 무료교육 등 국가의 사회적 혜택에 의해 주민들 모두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고 개인 중심의 자율적인 조직 수립이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적경제는 아직 시기상조
 -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 집권이후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전면적 인 개혁개방이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습득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선택한 이후 농민전문합작사¹⁾와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
- 북한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를 대비해 각 조직 형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별로 북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떤 것인가를 구상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 추진
 - 북한의 생산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과 한국의 협동조합간 교류 추 진 준비
 -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북한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 더 낳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방안 고민할 필요

¹⁾ 중국의 사회적경제는 실업자, 도시주민 최조임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함, 중국의 농민들은 정보, 기술, 생산재료 공급, 농산부산품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작사를 조직, 농업기술정보지식, 생산관리기술, 시장정보 소개, 판매, 조직적 운송, 종자, 화학비료 농약 등의 단체구입을 돕기도 했음, 중국 농민전문합작사는 농민을 대상으로 생산 전, 생산 중, 생산 후의 서비스를 제공

- ㅇ 북한의 여성단체, 각 지역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제3국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추진
 - 사전 교육이 이뤄져야 전면적인 개혁개방 초기 발생하는 실업,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다.

[종합토론]

북한의 경제개혁과 사회적경제

정태인 독립연구자, (전)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I. 머리말 -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 북한 통계의 부재

- 1인당 GDP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다양한 추정 최근 북한 고위관료 1300 달러 발언(한국 1978년, 중국 2003년에 해당)
- 다만 최근 북한 문헌을 보면 그들이 국제 국민계정 양식(가가치=잉여가치 중심)에따라 통계를 작성하려고 한다는 사실 짐작

- 최근 10년간 북한에 장기체류한 사람 전무

 북한 탈주민의 증언은 북한사회에 관한 대단히 소중한 자료지만 거시경제에 관한 그들의 경험은 믿을만하지 않음
 cf. 한국의 1인당 GDP 10,000달러 시점?

- 이론적 유추만 가능

- 북한경제는 소비에트형 계획경제가 가장 철저하게 시행된 경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대안의 생산방식"
- o 전환경제(transformation economy cf. transition economy)의 경험 = 소련, 동구권 의 실패 vs. 중국의 성공에서 북한 개혁 방향을 추출
- o 이러한 개혁 방향 속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대단히 우회적인 질문

Ⅱ. 사회주의 생산성 정체의 원인

- 1.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과 부족경제(Shortage economy)
 - 물질 자원, 특히 소비재의 부족은 자본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직접 원인 (3대에 걸쳐 최고 지도자의 경제적 목표가 "고기국에 쌀밥"이라는 현상)

- Kornai(2014, 1990, 1979a 1979b 등)의 "연성예산제약 → 부족경제" 이론은 사회주의 경제를 설명하는 주류 이론 사회주의권뿐 아니라 주류경제학에서(신제도주의경제학과의 결합) 대대적으로 환영
 - → 쇼크요법의 이론적 기초

2. 연성예산제약 비판

1) 개요

- 연성예산제약은 국가의 보조금, 특혜금융 등으로 인해 기업 파산의 위험이 없는 상태 → 생산성 제고의 물적 인센티브가 약화 → 부족경제의 논리구조 : 일종의 '도덕적 해이' 이론
- o 이후 Maskin, Roland 등과의 작업(Kornai, Maskin, Roland, 2003)을 통해 SBC는 합의이행문제(commitment problem)으로 귀결 즉 국가의 응징, 파산 위협이 신뢰할만하지 않기 때문
- 두 현상은 분명히 모든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견되므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2) 비판

- ㅇ 연성예산제약은 과잉생산과 경제기적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함
 - a) 자본주의 경제 고유의 과잉생산과 경제위기의 원인 = 거품 위기와 항상적 과잉 생산(항상적 유효수요 부족)
 - b) 동아시아의 기적 등 자본주의 추격 성공 사례의 필요조건 = 수출보조금
 - → 연성예산제약은 부족경제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님(Nuti, 1985, 2018, 2019)
 - cf. 그러나 Nuti의 부족 경제 설명은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설정(cf. 이중곡가제도) 은 자본주의 발전 도상에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일종의 "수동혁명"적 조치)이며 사회주의에서의 지속성을 설명해 줄 수 없음
- 연성예산제약은 모든 기술혁신에 동반되는 현상이기도 하며 그러한 '연성'이 없는 경우 혁신가들의 탐색, 개발 행위는 존재할 수 없음(cf. 실리콘밸리의 문화)
 - → 사회주의에서 생산성 정체 = 혁신 부재의 원인이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 향상
 - = 혁신의 필요조건이라는 역설 → 연성예산제약은 부족경제와 동반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일 뿐 원인이 아님.

3) 경성생산제약 - 대안적 설명

- 소비에트형 계획경제의 문제는 이미 많이 지적됨

- ㅇ 생산능력의 과소보고와 생산량의 과대보고(품질의 저하) = 정보문제(Stiglitz, 1990)
- o 집단행동의 문제(Olson)로 인한 생산 저하
- o 협동의 규범 = 사회주의 규범이 완전하다면 이 문제 해결? 김정일의 해법(김정일, 1971)

- 경성생산제약

- o 순수한 소비에트형 계획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모든 기업이 한 곳에서 생 산요소를 조달하고 한 곳에 생산물을 공급
- 이러한 시스템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명령으로 해결 신제도 주의 경제학이 항상 전제하는 "제3자의 강제가 없다면"이 사회주의 생산의 전제
- 매우 긴 가치연쇄(Value Chain)의 어느 한 곳에서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 그 중간재가 전체 생산의 양과 질을 결정 = "최소량, 최저질"에 의한 결정 → 연쇄적 생산성 저하
- "삼성 vs. 북한 수수께끼"(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가치연쇄는 북한 전체의 가치연쇄 보다 길다)의 해답 = 삼성이 거의 모든 중간재를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질의 안정 적 공급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 있음
 - cf. "기업은 결코 거래비용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거래비용을 치르고 서라도 새로운 부품과 생산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
 - → 경제 행위에 대한 보상과 응징이 계획의 달성에 있으므로 경성생산제약 하의 가장 큰 문제인 중간재 재고의 극대화가 기업의 직접적 중간목표가 됨 이 문제 역시 최고지도자들의 누누한 지적 사항 vs. 토요타의 적기생산방식(Just In Time)은 "재고 극소화"목표
 - cf.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제한은 생산요소의 안정적, 적기 조달을 달성한 최고의 기업들에게도 경성생산제약은 딜레마(= 윌리엄슨의 "근본적 전환"=쌍방독점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줌.

- 경성생산제약과 혁신 = 혁신의 발생과 전파 부재

o 혁신은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끊임없는 적응과정 - 혁신의 발생 못지않게 전파도 중요 cf. 기업은 혁신을 위한 조직(자원기반, 능력기반 기업이론) vs. 신제도주의 기업이론(기업 내외의 사회적 딜레마 = 외부성 해결 조직)

- ㅇ 경성생산제약 하에서는 혁신의 동인이 없음 실험의 부재, 적응의 필요 부재
- 계획 당국에 의한 혁신 전파를 상정할 수 있지만 전체 가치사슬 각각이 순차적으로 변화해야 혁신이 비로소 완료됨(각 단위가 모두 인정하는 혁신만 전파 가능 vs 자 본주의에서는 자신의 실패 부담을 전제로 각종 실험)
- o "외연적 생산"에서 "내포적 생산"으로의 이행 정체 "천리마 운동" 등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대중운동은 외연적 생산을 고착시킴

- 경성생산제약과 거시경제 = "은폐된 인플레이션"

- 사회주의체제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기업 생산물의 가격(W=C+V+S)도 확정되어 지 불됨
- 모든 생산요소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었는데 이들 요소가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재고 축적, 가동율 저하) 공급부족 현상 발생 → 보유 현금 대비 "과소공급 인플 레이션" & monetary overhang
- ㅇ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가격 정책은 "은폐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킴

- 경성생산제약과 사회심리 = "사회적 무력증(social loafing)"과 "본위주의"

- ㅇ 부분개혁의 실패는 "사회적 무력증"("해 봐야 소용없다")으로 이어짐
- o 이런 상황에서는 내 기업만을 위하는(임금 증대) "본위주의" 만연 가치사슬이 긴 기업에 근무한 사람일수록 더 이기주의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 cf. 공공재 게임에서 동독과 북한 출신들이 더 이기적인 반응을 보임

III. 전환경제의 개혁의 성공과 실패 - 구소련, 동구권 vs 중국

1. 사회주의권의 (부분) 개혁 실패의 원인

- NEP(1926~1928) 이래 모든 사회주의권(헝가리, 유고, 폴란드, 그리고 북한)은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의 자율성, 잉여의 시장 판매와 기업 전유, 노동자에 대한 물적 인센티브를 허용
 - o 이들 개혁의 실패는 사회주의권 경제학자들의 쇼크요법 지지의 핵심 이유 (ex.Gomulka 의 Stiglitz 비판)

- 부분 개혁 실패의 원인

1) 래칫 효과 - 물적 인센티브에 의한 생산성 증대가 계획 목표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짐

- 2) 평균노동시간 축소 효과 상품 생산의 가격은 맑스 이론대로 평균노동(표준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생산성의 향상은 단위당 노동시간을 저하시킴 자본주의 기업은 혁신에 의한 초과이윤을 상당기간 동안 누릴 수 있지만 (순수) 계획경제에서는 한 기업의 혁신이 곧바로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
- 3) 회초리 효과 경성생산제약으로 인해 특정 중간재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그 중간 재에 대한 수요 폭증 (계획은 이러한 수요 급변을 명령으로 억제 할 테지만 시장에서 는 가격의 급변으로 조절), 일부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중간재 재고가 흡수
 - → 경성생산제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격자유화와 물질적 인센티브 위주의 개혁은 한계가 있음 → 공산당 내 보수파(원리주의?)의 반동에 의한 개혁의 좌절.

2. "이행불황(transition recession)" - 쇼크요법의 실패

- 전환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제
 - 어러시아와 동구권의 경우 정치적 자유화가 선행 공산당과의 선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단기 요법 처방 ← 과거 부분개혁 실패의 경험
 - 주류경제학자(슐라이퍼, 비시니, 삭스)와 IMF 등은 급진파들과 손을 잡고 쇼크요법을 실시
 -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변화는 "고도의 불확실성 하의 행동"= 위험의 극소화로 이어 짐 행동의 정지 = 기존 시스템의 마비, 위험 요소의 배제, 정치적 결탁을 통한 안 정화
- 연성예산제약이론의 해법은 "시장에 의한 규율"
 - 가격자유화, 사유화(privatization), 긴축정책이라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해석됨 WC는 만병통치약!
 - 경성생산제약이라는 생산성 정체의 원인을 제거 하지 않은 가격자유화 → 하이퍼인플레이션 "은폐된 인플레이션"의 현재화 + 기업들의 경쟁적 임금인상 + 독점가격 인상 + 기업 파산 위험에 따른 구제금융 중 몇 가지 요소가 겹쳐져서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
 - 생산성 제고와 이윤 확보에 대한 확신 없는 사유화 → 기업의 헐값 판매(fire sale) 와 자산탈취(asset stripping)
 - ㅇ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은 10여년에 이르는 장기 침체를 이름
- 기본적으로 쇼크요법은 경제와 경제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 주류경제학의 오류 ㅇ 경제는 복잡적응계이며 환경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적응하며 성공한 적응의 복제를

통해 다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진화주의 경제학)

- 새로운 제도와 물질적 유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업과 개인이 바로 적응할 수 없음 전환은 제도뿐 아니라 사람과 기업의 행동양식, 규범의 변화를 동반
- 전환 또는 이행은 당시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백지 위에 그림 그리기"가 절 대 아님
-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격 도입은 1차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마비시켰고(생산 위축),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민영화에 따른 기업매각, 신흥 지배계층(노멘클라투라, 올리 가르치)에 의한 자산탈취로 이어짐
 - cf1. 동구권 전환 10여년이 지나면서 1980년대 후반의 경제수준 회복 → 다시 쇼크 요법의 승리 선언
 - cf2. 러시아, 동구권의 관료와 학자들은 쇼크요법 대 점진적 개혁은 중요한 두개의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증언(Popov, 2011) cf. 사실 정책은 당장 닥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대증요법의 연속이며 교과서 수준의 이론처럼 단순하지 않음.

3. 중국의 점진적 개혁과 교훈

- 불확실성의 최소화

- 중국공산당에 의한 내부개혁 정치적 불확실성의 최소화, 모택동 사상의 상대화, 천안문 사태를 제외한 시장개혁의 일관성
- ㅇ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 "돌다리 두드리기"
 - cf. 아직도 중국 지도부의 목표(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경로)는 모호 답을 정해 놓지 않고 끊임없이 논쟁과 합의된 부분부터 실험 (80년대부터 보수파 신좌파 자유주의 → 2000년대 유교주의 신좌파 자유주의의 논쟁)

- 경성생산제약의 완화와 공기업의 경쟁 노출

 아 가치사슬이 가장 짧은 농업부문에서 집단농장의 해체 → 장기사용권과 잉여의 자유 처분권

○ 계획경제 외부에

- 1) **향진기업(TVE) 설립** →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중국 경제 생산성 향상 의 주체 cf. 현재는 존재 여부
- 2) 특별경제구역(SEZ) 설립 → 1990년대 이후 "시장과 기술의 교환"에 따른 중화학 공업과 첨단 산업
- 지방간 경쟁 아시아 고유의 관료 능력주의에 입각한 성과 경쟁 → 다양한 실험과 혁신의 전파 "연방 경제" "사유화/자유화보다 분권화(decentralization) 우선"

- **이중가격제** 계획경제 내부는 여전히 가격통제(공기업 보조금 상존), 외부는 가격 자유화 - 경성생산 외부에 있으므로 이윤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가격상승 제한
- 점진적 공기업 사유화 1997년부터 규모가 작은 공기업부터 사유화, "관제고지"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산업과 공공성이 강한 산업은 공기업체제 유지
- 공기업의 해외 경쟁 강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대 공기업의 내셔널 챔피언화
 (제조업 2025), 첨단산업 경쟁
- 네트워크 경제 "꽌시"의 이용과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 ㅇ 대만과 세계의 화교 자본가들과의 꽌시(=시장경제의 경험)를 이용한 기업 설립
 - ㅇ 1990년대 말 창설한 중관촌의 성공 실리콘밸리 모방의 거의 유일한 성공사례
 - ㅇ 선전 등 특별경제구역의 클러스터화

- 다원적 경제체제의 지향

- 중국경제의 성격?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중국정부), "자본주의"(Kornai, 2013년 부터 입장 변화), "국가자본주의"(Coase & Wang, Naughton & Tsai), "정치적 자 본주의"(Milanovic), "중국주의"(Chinism, Kolodko, Nuti) = 독특한 제3의 경제체제
- 자본주의적 성격 1) 사적소유와 민간기업의 우위, 2)임금 노동자, 3) 시장규율,
 4) 소득과 부의 불평등(세계1위 수준)
- 사회주의적 성격 1) 공공소유(땅, 자본, 금융과 에너지 등 전략산업)의 중요성, 2) 적극적 국가개입(자본주의 사회가 포기한 경제정책의 광범한 활용) + 정치적 행정 적 개입
- 국공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사회주의 체제와 시장 원리로 일원화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동시 지양

IV. 북한의 개혁방향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1. 북한의 특징

- 북한은 가장 철저한 소비에트형 계획경제를 추구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 가장 철저한 당 통제 사회 경제분야의 "대안의 생산방식"

- 가장 철저한 이데올로기 통제 "주체 기술"까지
 -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전기등 과거 자원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기술체계 발전 → 에너지 부족 등 비교우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들어간 기술체계 혁신 불가능
 주체가 붙은 산업의 생산성 저하
 - 돌파혁신(비날론, 주체의학, 핵물리학, 미사일 수치제어)을 제외한 혁신은 사실상 포기

- 부분개혁의 실패와 시스템 붕괴

- 주자파=개혁파 숙청에 의한 김일성체제 공고화 수령을 제외한 개혁 이니셔티브 제안 불가능
- 부분 개혁 시도와 실패 (특히 2001년 기업경영개선, 2009년 화폐개혁) 당내의 보수파가 언제든지 이념공세로 개혁을 좌절시킬 준비 - 앞에서 살펴본 사회주의 하 부분개혁의 난점을 고려할 때 "경성생산제약"의 합리화 시도는 좌절될 운명
- > 공기업.계획 경제의 붕괴(가동율 20%?)와 생존형 시장경제의 발생과 발전
 → 계획시스템의 붕괴가 앞으로의 개혁에 도움이 될까?

2. 경제개혁 방향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 북한 경제개혁의 절대적 대전제는 남북한 및 동북아 평화체제의 형성
 - ㅇ 북한 정권이 스스로의 안보에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경제개혁도 본격 출발
- 북한의 당통제, 1인 지배는 올바른 개혁 노선을 택하는 경우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쇼크요법을 택하는 경우 경제위기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실각과 더불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아직도 강고한 주체사상, 특히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와 "대안의 방식"은 분산화, 자율화의 거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 → 김정은 체제는 개혁의 희망이자 동시에 위험 요소

- 부분적, 점진적 중국 모델의 채택

- 북한의 과거 간헐적 개혁은 중국모델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 기원은 NEP)
- "경제연구" 등에 일부 나타나는 쇼크요법 주장, IMF 등 국제기구의 조건, 남한과 북한의 금융자본의 요구 극복 필요

- 계획경제 외부에 존재하는 시장경제의 합법화와 지방 협동조합 기업
 - 농업의 포전담당제의 강화와 잉여의 자의적 수탈(생산 증가분을 군대 등 다른 기관과 지방이 자의적으로 재분배) 금지
 - 이미 존재하는 농기계와 자원의 공동생산/이용은 군 또는 면 단위 협동조합으로 자체 해결(협동조합에 대한 남한의 지원 필요)
 - ㅇ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업, 수공업 차원의 제조업 합법화(사기업 또는 협동조합)
 - 중국의 향진기업(모택동 시기에도 육성 시도)과 같은 군 단위 기업은 김일성 시대부터 강조(여유 중간재와 지방의 자원을 이용한 생산 확대) 지방에 따라 협동조합형 군단위 기업 육성 (군 단위 자매결연에 의한 북한 농촌 기업에 대한 수요 창출, 공급 지원)
- 만일 군 단위 기업과 주민들 사이에 고도의 신뢰가 존재한다면(가능성이 낮지만) 에밀 리아로마냐형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건설

- 협동조합형 부분개혁과 공기업 사유화의 가능성

- 경선생산제약 하의 유고의 자주관리 개혁(기업의 협동조합화) 역시 실패 워드-도마-바넥(W-D-V firm)의 비판(협동조합기업은 노동자/조합원 1인당 순수입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급대응에 비탄력적이며 심지어 수익성이 좋을 때 고용을 줄이거나, 비조합원 노동자를 고용하여 KMF로 타락할 것이다(이른바 '워드효과'). 또한 은퇴에 가까운 노동자일수록 미래의 투자수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현재의투자에 반대할 것이다(Pejovich, 1992, Jensen & Meckling, 1979). 따라서 과소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거나('시야문제 horizon problem') 새로운 조합원을 받지 않으려할 것이다('공동소유문제 common property problem') 등)은 자본주의에서는 현실에 의해 일부 기각되었지만 사회주의 부분개혁에서는 실제로 발생("본위주의")
- 기존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에 의한 **협동조합형 사유화는** 다른 사유화 방식보다 더 많이 기업 매각으로 귀결(Gomulka의 Stiglitz&Ellerman 비판) - 고도의 불확실 성 하 단기 조합원 이익 극대화
- 중국의 TVE가 협동조합으로 계속 발전했는지는 아직 실증이 없는 상태
- ㅇ 러시아 및 동구권 경제가 안정된 2000년대 이후 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논의 부활

- 이중경제의 이용

- 앞에서 보았듯이 그림자경제, 제2의 경제 등은 계획경제를 보완할 수 있음 cf. 왜 주류경제학이 적대적?
- o 어느 사회주의권에서나 **중간재 확보 담당자**는 시장 탐색과 조달 네트워크 전문가
- ㅇ 북한의 "돈주"는 혁신가와 지대수탈자의 이중적 성격을 전문적 주체 특히 중국

(중국의 조선족, 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인) 해외네트워크는 전환경제의 핵심적 주체

- cf. 에밀리아 로마냐의 선도기업(leading company)은 과거 한국의 종합상사 역할 한국 기업은 북한경제의 수출 상품을 발굴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 제2경제, 또는 그림자경제는 사회주의 중간재의 조달 창구이자 과잉 중간재의 해소 창구(2001년 경영개선조치에서 "사회주의 물자시장 인정)이자 '부족경제'를 보완하는 자생적 시장경제 - 시장경제 합법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 + 공기업 경쟁에 의한 보조금 축소 → 장기적으로 다원적 경제체제 발전
- 단, 군 경제, 당 경제에 의한 자원 수탈과 해외수출은 불법화, 남겨든 특수경제는
 양성화하여 기업 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할 필요 지배계급의 부패 축소

- 거시경제적 필수 조치

- 북한에도 monetary overhang 존재 중국과의 무역과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2002년, 2010년과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시중의 현금을 은행으로 흡수할 필요
-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법 제·개정 등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금융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뢰 부재 - 연 100%가 넘는 고리대업 성행
- 남한의 예금보험공사 등의 지원에 의한 시중 자금의 은행 흡수 필수적 도 단위의 신용협동조합 설립과 남한의 지원
- 현재의 위애나이제이션 현상은 앞으로 국제제재가 풀리고 상품과 자본 유출입이 획 기적으로 증가할 때 외환위기로 발전할 수 있음 - 외환과 자본통제를 상당 기간 유 지할 필요
- 공기업의 과잉인력, 군대 축소에서 나오는 인력을 흡수할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계획경제외부에 먼저 존재해야 함 → 점진적, 장기적 공기업 개혁, 외부의 중소기 업, 자영업 합법화 및 촉진, 노동집약산업의 수출기업화

- 외부경쟁에 의한 공기업 개혁과 수출 진흥

- ㅇ 2010년대 민속상품(주로 식료품, 담배, 민속공예품)의 수출 강조
- 모든 공기업의 가치연쇄는 수출을 의무화하여 국제경쟁에 노출 여러 외국기업의 수입품에 의해 대체할 수 있는 중간재 보완 - 한국 부품중소기업의 역할 중요

- 혁신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 ㅇ 김정은 시대에 25개의 경제자유구역 설립 개성공단을 제외하곤 실적이 별로 없음
- 제2 개성공단의 설립(진남포까지)과 북한 기업, 외국 기업, 북한의 대학과 연구소
 등 혁신 네트워크 형성

- o **평양 중심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건설과 남북한, 중국 연구자의 상호파견 → 장차 소규모 중관촌(실리콘 밸리) 건설
- ㅇ 개성공단과 서울, 인천을 잇는 에밀리아 로마냐형 중소기업 네트워크 건설 가능?

-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건설협동조합

- 북한의 인프라 건설은 AIIB의 조건 없는 저이자 융자에 기초해야 함(현재 "경제연 구"의 민관합작 주장은 위험)
- 건설은 에밀리아 로마냐의 CCC에서 보듯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기 좋음 초 기의 군대인력 흡수 용이

- 남북 사회적경제의 상호 보완?

○ 북한은 의료 인력의 상대적 과잉과 과소 의료자원 보유 - **북한 의료진의 남한 파견에** 의한 의료협동조합, 남한의 약품, 의료기기 공급에 의한 북한 의료협동조합 건설?

[종합토론]

토론문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

1. 해외 사회주의권국가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접근 방식 및 원칙은 무엇인가?

□ 접근 방식

- ㅇ 사회적경제 전략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
 - 북한 정부는 중요 특구 개발이나 중요 산업부문에 대해 국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음. 반면 주민들의 일상 영역과 관련된 부문은 시장 허용을 통해 자립적으로 필요 물자들을 해결하길 원하고 있음
 -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의 필요에 기초하여 접근한다면 호응 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용이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한의 니즈(needs)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북과 협력할 때 자본주의 국가 맥락에서 형성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는 개념과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
 - 자칫 우리식 개념과 방법론을 북한에 무리하게 적용하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 북의 사회주의 경제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ㅇ 사회적경제를 한반도 발전전략으로 삼을 것인지는 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일반 원칙

- ㅇ 공공토지임대제는 자립경제의 핵심 기초: 토지가치 환수 시스템
 - 사회적경제 이론을 정립한 칼 폴라니는 토지, 노동, 돈이 거래되면 안 되는 영역 이었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비판했음
 - 필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영국에서 인클로져로 인해 도시 노동자로 전락한 이들이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 따라서 토지라는 공유자산을 어떻게 소유 및 이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기초

- 임. 이러한 점에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필요한 이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 도록 허용하되 특권에 대한 대가를 토지임대료 형식으로 지대를 납부하는 공공토 지임대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 공공토지임대제 위에서 토지가 필요한 개인과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도 토지를 장기 임차할 수 있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최대 난관은 토지확보라는 점을 상기하면 공공토지임대제는 사회적경제의 매우 중요한 기초임
- ㅇ 여기에 더해 사회적금융이 매우 중요함
 - 실제로 하나누리가 라선특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자립마을 프로젝트의 경험을 보더라도, 사회적금융은 농촌 마을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립할 수 있 는 재원을 조달해 준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접근법임
 - 북한 주민들도 재정 지원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자립적인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토지와 금융이라는 변수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행되는 '토지+금융 매트릭스'(조성찬, 2013)에 빠지지 않으면서 공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

2. (북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 등장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 등장'이 북한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위의 질문은 북에서 '아직'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함. 현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ㅇ 그럼에도 북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들
 - 주민들에게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이미 진행되고 있음. 장마당 허용. 기업 활동의 자유 허용. 대신 부동산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있음
 -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실제적으로 보장: 이미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식의 물 권화 및 등기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시장 거래도 허용되고 있지 못함
 - 단체 설립의 가능성: 북한 헌법은 '협동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동단체는 토지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미 경제행위의 주체로 다양한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음

- 단체의 자치 허용 : 상급 기관과 정부의 강력한 통솔 하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리하면, 어떤 맥락에서는 북에서도 이미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에 대한 비판 및 정책 제안 기능은 매우 약함

3.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 북한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쿠바가 2011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이러한 사례를 깊이 연구하여, 북한에게 협동단체가 사회주의로 가능 '과도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 및 설득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중앙정부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o 현재 북한에 어떤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및 남북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
- 북한의 협동조합을 국제기구로 편입시켜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 필요
-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시나 농촌의 일정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임